

# 영남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 영남문화연구원을 중심으로 -

이 상 원\*

- I. 서론
- II. 학계의 영남문학 연구 현황
  - 1. 학계의 영남문학 연구 현황 1 : 구비문학 분야
  - 2. 학계의 영남문학 연구 현황 2 : 고전시가 및 고전소설 분야
  - 3. 학계의 영남문학 연구 현황 3 : 한문학 분야
- III. 영남문화연구원의 영남문학 연구 현황
- IV. 영남문화연구원의 영남문학 연구 방향-결론을 대신하여

## 국문초록

이 글은 영남문화연구원의 영남문학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본 것이다. 이를 위해 학계의 영남문학 연구 현황과 대비 고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학계의 영남문학 연구 현황을 구비문학, 고전시가 및 고전소설, 한문학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비문학 분야에서는 인물전설, 서사민요, 동해안무가, 탈놀이 등이 주목되었다. 고전시가에서는 조선전기 사대부 시가와 조선후기 규방가사, 그리고 고전소설에서는 작가와 작품배경 및 유통양상 등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한문학의 경우 퇴계학, 남명학, 강안학, 산수문학 등이 특히 주목을 받은 분야라 할 수 있다.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전자우편: sanje2@hanmail.net

다음으로 학계의 영남문학 연구 현황을 영남문화연구원의 영남문학 연구 현황과 견주어 보았다. 그 결과 영남문화연구원의 영남문학 연구 현황은 학계의 영남문학 연구 성과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큰 분발이 요청된다 하겠는데, 이를 위해 집중해야 할 방향으로 구비문학 분야에서는 서사민요, 고전시가 및 고전소설 분야에서는 규방가사와 소설 유통, 한문학 분야에서는 강안학과 산수문학이 적합할 것으로 제시해 보았다.

◆ 주제어

---

강안학, 규방가사, 서사민요, 영남문학, 영남문화연구원

## I. 서론

“영남학 연구의 현단계”라는 큰 주제 아래 문학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맡아달라는 것이 영남문화연구원이 필자에게 부탁한 것이었다. 그런데 영남학의 일부로서의 영남문학 연구의 현단계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필자의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다. 그래서 청탁한 연구원의 취지와 상관없이 필자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영남문학과 관련한 영남문화연구원의 현단계를 점검하고 향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소임을 대신하기로 하였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감당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하였지만, 출범 당시 영남학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것<sup>1)</sup>을 영남문화연구원의 목표로 내세웠기 때문에 현실점에서 이를 평가해 보는 것도 꽤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도 한 몫을 했다.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은 2000년 7월 3일 창립되었고, 2001년 6월 말에 기관지 『영남학』 창간호를 내놓았다. 이로부터 지금까지 28호의 기관지에 총 30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글에서는 여기 발표된 논문 중 문학 관련 논문만을 대상으로 영남문화연구원의 영남문학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현황 점검과 방향 제시는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냉정한 평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외부의 상황과 내부의 상황을 비교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로 한다. 즉 학계의 영남문학 연구 현황을 점검한 다음 영남문화연구원의 영남문학 연구가 이것과 견주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

1) 영남문화연구원에서는 “영남 관련 한국학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자 설립되었다.”고 그 설립 목적을 밝히고 있다.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홈페이지(<http://www.ynculture.or.kr>) 연구원소개/설립목적 참조.

## II. 학계의 영남문학 연구 현황

영남은 땅이 넓고 뛰어난 인물이 많이 배출된 지역이다. 문학의 측면에서도 오랜 기간에 걸쳐 생산된 다채로운 문학 종류가 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영남문학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문학 연구의 초창기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축적된 성과는 상당한 양에 이른다.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분석을 진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구비문학, 고전시가, 고전소설, 한문학이라는 한국문학의 범주를 구분하는 편의적 방식을 차용하여 각각의 방면에서 중요한 성취를 이루었다고 판단되는 핵심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간략히 검토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 1. 학계의 영남문학 연구 현황 1 : 구비문학 분야

구비문학 분야에서 영남의 지역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그간 학계에서 주목해온 것은 인물전설, 서사민요, 동해안무가, 탈놀이 등이다.

인물전설은 2000년 영남문화연구원의 창립 기념 학술대회(2000.11.24)에서 문학 분야 초청자였던 조동일이 영남문학 연구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한 것이다. 조동일은 영남문학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는 것들을 열거한 뒤 그 중 심층적 고찰의 한 사례로 인물전설을 선택하였다. 그는 “중부지방이나 호남지방에서는 소설이 상하층 공동의 문학이었는데, 영남지방에서는 소설 대신에 인물전설이 그런 구실을 했다.”<sup>2)</sup>고 하여 인물전설의, 상하층 공동 문학으로서의 특성에 특별히 주목하였다. 인물전설은 대개 그 지역의 인물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지역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조동일이 말하는 것과 같이 다른 지역에서 소설이 하는 구실을 이것이 대신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이는 분명 영남문학의 주요한 특

---

2) 조동일, 「영남문학 연구의 과제와 인물전설의 의의」, 『영남학』 창간호, 영남문화연구원, 2001, 56쪽.

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물전설은 조동일이 파악한 것처럼 상하층이 소통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기도 하지만 계층보다는 마을 단위에서 차이를 드러내며 전승되기도 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한 인물을 둘러싼 지역 담론의 형성 과정과 그 의미를 파악할 수도 있다.<sup>3)</sup> 한편 인물전설은 문화콘텐츠로 가공되어 축제 등에 활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영남문학의 한 부분으로 적극 연구될 필요가 있다.<sup>4)</sup> 영남의 인물전설과 관련된 학계의 대표적 성과를 들면 다음과 같다.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학교 출판부, 1979.

김광순·소재영·임재해·신태수, 『망우당전설의 의미와 전승양상』, 망우당기념사업회, 1992.

최운식 외, 『전설과 지역문화』, 민속원, 2002.

임재해, 『안동의 비보풍수 이야기-영남산 여근형국에 관한 풍수 전설과 신앙』, 민속원, 2004.

김재용, 『대구 경북 지역의 설화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7.

조동일의 『서사민요 연구』(계명대학교 출판부, 1970) 이후 서사민요는 영남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영남문학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사민요가 영남지역 중심의 문학이라는 인식은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서사민요는 전국적으로 널리 불렸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sup>5)</sup> 사정이 이렇다고 해서 영

---

3) 이에 대한 연구로 “조정현, 「마을 성격에 따른 인물전설의 변이와 지역담론의 창출-안동지역 서예 류성룡 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9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9.”가 있다.

4) 인물전설과 축제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 “김은정, 「아랑전설의 축제화 양상과 그 사회문화적 의미」, 안동대 석사논문, 2003.”이 있고, 구비문학과 축제의 관계를 이론적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로 “임재해, 「구비문학의 축제성과 축제에서 구비문학의 기능」, 『구비문학연구』 제24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7.”이 있다.

5) 서영숙, 「서사민요의 지역문화적 성격 :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32집, 한국시가학회, 2012.

남문학 연구에서 서사민요를 배제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서사민요는 여전히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고 이들 두 지역의 서사민요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서사민요는 유형의 전승에 있어서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유형이라 할 지라도 하위유형의 전승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이 점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sup>6)</sup>고 한다. 따라서 영남의 서사민요는 영남문학으로서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에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영남의 서사민요 연구와 관련된 대표적 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동일, 『서사민요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70.

임동권, 『한국부요 연구』, 집문당, 1982.

김기현, 「〈시집살이노래〉의 구연 특성과 그 의미-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26호, 한국문학언어학회, 1992.

서영숙, 『한국 서사민요의 날실과 씨실 : 우리 어머니들의 노래』, 역락, 2009.

서영숙, 「영남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적 특질-호남지역 서사민요와의 비교를 위하여」, 『고시가연구』 제26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0.

무가는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이해하고 있다.<sup>7)</sup> 이 중 동해안 경상도 지역은 여타 권역에 비해 무속의 담당자인 무당이 연회성과 오락성을 특히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이른 시기부터 ‘동해안무가’ 또는 ‘동해안 별신굿 무가’라는 이름으로 자료 정리 및 본격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동해안 경상도 지역의 무가는 북한 지역

---

6) 위의 논문, 129쪽.

7) 논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홍태환은 북한 지역, 동해안 경상도 지역, 중서부 지역, 전라 지역, 제주 지역 등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다. “홍태환, 「무가권에 따른 서사무가의 전승 양상」, 『한국무속학』 제3집, 한국무속학회, 2001.” 참조.

이나 제주도 지역만큼 고유성이나 지역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전라도 지역과 함께 보편성과 지역성이 병립하는 양상을 띠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8)</sup> 따라서 동해안 경상도 지역의 무속이나 무가에 나타난 지역성을 고찰하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해안 경상도 지역의 무속이나 무가와 관련된 대표적 성과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최정여·서대석, 『동해안무가』, 형설출판사, 1974.  
 김태근, 『한국의 무속신화』, 집문당, 1989.  
 박경진, 『한국의 별신굿 무가』(전12권), 국학자료원, 1999.  
 이균옥, 『동해안 지역 무극 연구』, 박이정, 1998.  
 홍태한, 『한국 서사무가 연구』, 민속원, 2002.  
 윤동환, 『동해안 무속의 지속과 창조적 계승』, 민속원, 2010.

탈놀이(또는 가면극)는 마을 굿과 연관된 농촌형(또는 향촌형) 탈놀이와, 굿과 상관없이 공연된 도시형 탈놀이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남지역에는 농촌형 탈놀이와 도시형 탈놀이가 모두 존재하고 있다. 안동 하회마을에서 전승되는 하회별신굿 탈놀이는 마을 굿으로 행해진 서낭제 탈놀이로서, 강릉단오굿의 관노탈놀이와 함께 농촌형 탈놀이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찍부터 “마을의 역사, 공동체 의례, 구비전승의 환경, 그 객관적 상관물인 탈의 역사와 전설, 조형과 효과 등을 중심으로”<sup>9)</sup> 하회별신굿 탈놀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997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개최된 이후에는 세계적 주목을 끌게 되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하회별신굿 탈놀이의 고유함이나 지역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부정적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런 양면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도 나오게 되었다.<sup>10)</sup> 안동의 하회별신굿 탈놀이가 농촌형 탈놀이이라면 경남지역

8) 위의 논문.

9) 이영배, 「시선과 형상 : 하회별신굿 탈놀이의 정후적 독해」, 『탈경계 인문학』 제3권 1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0, 146쪽.

10) 조정현, 「하회별신굿의 지역성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국제화 추구의 양면성」,

에서 전승되는 야유와 오광대는 도시형 탈놀이에 속한다.<sup>11)</sup> 그런데 경남지역의 야유와 오광대는 중부지방의 산대놀이나 해서지방의 탈춤과 구별되는 지점이 많은데다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 야유와 오광대라는 서로 다른 탈놀이를 전승해 왔기 때문에 지역문학이나 지역예술적 성격이 두드러진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산대놀이나 탈춤과의 차이, 야유와 오광대 상호간의 차이, 나아가 야유와 오광대 내에서 각 소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조사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역시 최근에는 지역축제와의 관련성 속에서 문화관광콘텐츠로서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논의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sup>12)</sup> 영남의 탈놀이에 대한 자료를 소개하고 연구를 진행한 것 중 대표적인 성과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심우성 편, 『한국의 민속극』, 창작과비평사, 1975.

정상박, 『오광대와 들놀이 연구』, 집문당, 1986.

서연호, 『야유, 오광대 탈놀이』, 열화당, 1989.

안동문화연구소, 『하회탈과 하회탈춤의 미학』, 사계절, 1999.

김해민속예술보존회 편, 『김해가락오광대』, 박이정, 2004.

박진태, 『하회별신굿탈놀이』, 피아, 2006.

---

『한국민속학』 제50집, 한국민속학회, 2009.

- 11) 일부에서는 본격적인 도시형 탈놀이인 중부지방의 산대놀이나 탈춤과 구별하기 위하여 농촌형 탈놀이와 도시형 탈놀이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 12)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진희, 「진주탈춤한마당의 지역화와 세계화에 관한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제7집,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1.”, “이진희, 「영남의 지역 문화브랜드로서 오광대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방안」, 경상대 석사논문, 2013.”, “안영숙,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진주 오광대 가치와 축제로서의 ‘진주탈춤한마당’ 고찰」, 『글로벌문화콘텐츠』 제20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5.” 등이 있다.



## 2. 학계의 영남문학 연구 현황 2 : 고전시가 및 고전소설 분야

고전시가 분야에서 영남의 지역성을 고려한 연구로 대표적인 것은 조선전기 사대부 시가와 조선후기 규방가사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고전시가에 있어 영남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향가를 생각할 수 있으나, 향가를 영남이라는 지역문학의 관점에서 연구한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한다.

조선전기 영남의 사대부 시가에 대해서는 조운제가 영남가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적이 있으나<sup>13)</sup> 이후 이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한 논의<sup>14)</sup>가 있은 후에는 주로 영남시가라는 이름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sup>15)</sup> 이 영남시가 연구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이는 이동영이다. 그는 영남지역에서 산출된 국문시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남의 인문지리적 특성에 기반하여 영남시가를 영좌시가, 영우시가, 강안시가의 셋으로 구분한 다음 이들 각각에 대하여 자세히 고찰하였다.<sup>16)</sup> 이후 이 구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연구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이 틀을 염두에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중 안동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영좌시가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농암 이현보와 퇴계 이황을 중심으로 한 16세기 안동 지역 시가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안동 지역이 영남시가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조선전기 사림과 시가의 중심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담양을 중심으로 한 호남시가와 견주고 상대적으로

13) 조운제, 「퇴계 중심한 영남가단」, 『청구대학논문집』 제8집, 1965.

14) 이동영, 「영남가단 연구」, 『시조학논총』 제3,4합집, 한국시조학회, 1988. 이동영은 이 논문에서 시조학회의 기획에 따라 논문 제목을 ‘영남가단 연구’라 하면서도 본문 내용을 통해 ‘영남가단’이라는 용어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본문에서는 ‘영남시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5) 그러나 가단으로서의 실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분강가단, 석문정가단 등의 이름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재남, 「분강가단의 풍류와 후대의 수용」, 『배달말』 제30집, 배달말학회, 2002. 박이정, 「석문정시가단의 성립과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17집, 한국시가학회, 2005.

16) 이동영, 『조선조 영남시가의 연구』, 부산대학교 출판부, 1984.

강호가도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부각하고자 하였다.<sup>17)</sup> 이렇게 안동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영좌시가에 연구가 집중되었던 시기에는 박인로를 제외하면 영우시가와 강안시가에 대한 관심은 별로 높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기존 연구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면서 영우시가와 강안시가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강안시가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18)</sup> 조선전기 영남의 사대부 시가에 대한 대표적 성과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이동영, 『조선조 영남시가의 연구』, 부산대학교 출판부, 1984.
- 황충기, 『노계 박인로 연구』, 국학자료원, 1994.
- 신영명, 『사대부시가의 연구』, 국학자료원, 1996.
- 최재남, 『사림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 국학자료원, 1997.
- 김문기, 『문경의 구곡원림과 구곡시가』, 한국학술정보, 2005.

조선후기 규방가사는 고전문학 전체를 통틀어서 영남문학으로서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논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규방가사는 영남의 부녀자들이 짓고 향유한 문학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영남의 규방가사가 지닌 지역문학적 성격을 탐구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규방가사는 근자에 들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 중의 하나여서 축적된 연구물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연구의 성격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일정

---

17) 이런 연구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이다. 그는 여기서 ‘영남가단과 강호가도’, ‘호남가단과 풍류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영남과 호남의 시가를 대비 서술하고 있다.

18) 강안시가에 대한 연구 중 대표적인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김문기, 『문경의 구곡원림과 구곡시가』, 한국학술정보, 2005. 박이정, 「석문정시가단의 성립과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17집, 한국시가학회, 2005. 이상원, 「〈개암십이곡〉의 성격과 시가사적 위상」, 『고시가연구』 제1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7. 이상원, 「상주문화권 시가문학 연구」, 『어문론총』 57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송재연, 「고응척의 시가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4.

한 방향성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그 대체적인 경향만을 지적해 보기로 한다. 초기에는 자료의 수집과 정리, 작품의 유형 분류, 창작 및 향유의 범위, 그리고 대표적인 몇몇 작품에 대한 작품론적 고찰 등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규방가사 연구 경향이 크게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규방가사 연구 대상이 조선후기에서 20세기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자료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20세기 자료가 주로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규방가사를 글쓰기와 연관 지어 고찰하려는 시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sup>19)</sup> 이는 최근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글쓰기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공감과 소통, 그리고 치유 등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최근 규방가사가 특별히 주목받고 있다. 규방가사는 다름 아닌 조선시대 규방 여인들의 치유의 글쓰기였고, 친정 부모가 시집가는 딸과 상호 소통하는 매개체로서 존재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역시 시대성을 반영하는 것인데, 문화콘텐츠 및 관광자원화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sup>20)</sup> 영남의 규방가사와 관련된 연구 중 대표적인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 이재수, 『내방가사 연구』, 형설출판사, 1976.
- 권영철, 『규방가사 연구』, 이우출판사, 1980.
- 서영숙, 『한국 여성가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6.
- 이정옥,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 박이정, 1999.
- 나정순,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 박경주, 『규방가사의 양성성』, 월인, 2007.

---

19) 대표적으로 “김수경, 『규방가사, 공유 · 소통 · 치유의 글쓰기』, 보고서, 2014.”와 “최규수, 『규방가사의 ‘글하기’ 전략과 소통의 수사학』, 명지대학교 출판부, 2014.”를 들 수 있다.

20) 백순철, 「문화콘텐츠 원천으로서 <화전가>의 가능성」,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34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4. 고순희, 「안동의 지역성과 만주 망명 관련 가사문학-지역문화콘텐츠 제안」,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35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5.

고전소설의 경우 조동일은 창작과 향유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영남문학의 주요 영역에서 제외했었다.<sup>21)</sup> 물론 그의 말대로 영남지역에서 고전소설의 창작과 향유가 아주 활발하게 존재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영남문학 연구에서 고전소설 분야를 제외해도 좋은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많지는 않지만 <친군전>을 쓴 김우용, <친군기> · <사대기> · <옥항기> · <달천몽유록>을 쓴 황중운 등의 작가가 존재하고 있으며, 영남지역을 소설의 주요 배경으로 하고 있는 <숙영낭자전>, <박효랑전>, <김부인열행록>, <향랑전>(또는 <삼한습유>) 등의 작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필사본 고전소설의 경우 영남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유통 양상을 보여준다고 한다.<sup>22)</sup>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고전소설 분야에서도 영남문학의 일부로서 연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특히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 보면 작가, 작품 배경, 유통 양상 등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영남의 정치성이나 유교문화와 밀접한 상관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와 같은 연구는 더더욱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영남의 고전소설을 연구한 대표적 성과를 들면 다음과 같다.

김동협, 「황중운 소설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1990.

조혜란, 「“삼한습유”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4.

김일렬, 『숙영낭자전 연구』, 역락, 1999.

서인석, 「봉건시대 여성의 이념과 행동-〈박효랑전〉과 〈김부인열행록〉의 경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김재웅, 『필사본 고소설의 지역별 유통 양상과 향유층에 대한 실증적 연구』, 역락, 2015.

서혜은, 「영남의 서사 <숙영낭자전>의 대중화 양상과 그 의미」, 『인문연구』 제74집,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

21) 조동일, 앞의 논문.

22) 김재웅, 「필사본 고소설의 지역별 유통과 문화지도 작성」, 『대동문화연구』 제88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 3. 학계의 영남문학 연구 현황 3 : 한문학 분야

한문학 분야에서 영남의 지역성을 고려한 전통적 연구로 퇴계학과와 남명학파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영남의 한문학 전통은 신라시대로까지 소급할 수 있으나 그때로부터 조선전기 영남사림파(김종직 문인)까지는 영남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 데 비해, 조선중기 이후 영남학파의 한문학은 여타 지역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영남학파 내에서도 퇴계학과와 남명학파는 일정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3)</sup> 이에 따라 퇴계학파의 중심 지역인 경북에서는 경북대학교와 안동대학교가 퇴계(학)연구소를 설립하여 퇴계학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남명학파의 중심 지역인 경남에서는 경상대학교가 남명학연구소를 설립하여 남명학파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함으로써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퇴계학과와 남명학파에 대한 연구는 확실한 지역적 기반을 가진 상태에서 문학·역사·철학이 상호 협력하여 학제간 연구를 도모하는 기획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문집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실제 연구에서는 문학 분야의 연구가 역사나 철학 분야의 연구에 비해 한참 뒤쳐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sup>24)</sup> 영남학파의 주요 인물들은 영남에 국한하지 않는 탈영남권 인물이라는 점에서 굳이 지역문학의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sup>25)</sup> 영남학파의 문학에 대한 주요 성과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정우락, 『남명문학의 철학적 접근』, 박이정, 1998.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편, 『퇴계학과 남명학』, 지식산업사, 2001.

23) 주승택, 「경북지역의 한문학 연구」, 『동방한문학』 제26집, 동방한문학회, 2004.

24) 위의 논문.

25) 이종호, 「지역 한문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안동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39집, 한국한문학회, 2007.

정우락, 『남명학과의 문학적 상상력』, 역락, 2009.

김윤조 외, 『18세기 영남 한문학의 전개』,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1.

손오규, 『퇴계시와 미학』,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2.

한편 최근에는 영남학을 퇴계학과 남명학으로 양분하여 이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강안학(또는 낙중학)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강안(江岸)이란 용어는 낙동강 연안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서 원래 이동영이 영남 시가문학의 특성을 고찰하면서 처음 사용한 것이다.<sup>26)</sup> 그런데 강안학의 독립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를 유학사상과 한문학을 연구하는 데로 확대하여 사용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퇴계학과의 일부로 간주하던 한려학파(寒旅學派)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퇴계학과 남명학을 아우르는 회통적 성격을 보이고 있는 점에 특히 주목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한려학파의 강안학이 보여주는 회통성은 다른 지역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하고 또 현재적 의미도 크다는 점에서 강안학을 퇴계학에서 분리하여 영남학을 퇴계학, 남명학, 강안학의 삼분구조로 이해하는 것은 아주 유용한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강안학의 범주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합리적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강안학은 아직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는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강안학의 관점에서 연구한 한문학 분야의 성과는 정우락의 논문들을 제외하면 미미한 편이다.

강안학과 동질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약간의 차별성을 가진 것으로 낙중학을 주창하는 논자들이 있다. 이들은 낙동강 연안 전체를 문제 삼지 않고 낙동강 중류 지역의 연안만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공간적 범위는 강안학에 비해 오히려 축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오히려 여말선초의 정몽주와 길재, 조선전기의 김숙자·김종직·김굉필, 그리고 조선후기 이진상의 한주학과·허전의 성재학과·장복추의 사미헌학과

---

26) 이동영, 『조선조 영남시가의 연구』, 부산대학교 출판부, 1984.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27)</sup> 이런 낙중학의 경우 아직은 유학사상으로 논의가 국한된 측면을 보이고 있어 김종직의 문학사상을 다룬 이종호의 연구를 제외하면 한문학 방면의 뚜렷한 성과는 제출되지 않았다. 강안학과 낙중학의 관점에서 접근한 한문학 연구 성과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정우락, 「조선중기 강안지역의 문학활동과 그 성격-낙동강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시론-」, 『한국학논집』 제40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0.

정우락, 「낙동강과 그 연안지역의 공간 감성과 문학적 소통」, 『한국한문학연구』 제53집, 한국한문학회, 2014.

이종호, 「조선 초기 낙동강 중류 지역 사림의 문학사상-점필재 김종직의 문학사상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40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학과와 학맥, 그리고 그에 따른 인물 연구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지역학으로서의 문제의식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최근의 연구로 산수문학을 들 수 있다. 산수시, 부, 유산기, 누정기 등을 포괄하는 산수문학은 특정 지역의 자연 경관과 인문지리를 바탕으로 생성·발달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지역문학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 중에서도 최근에는 특히 유산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조선시대 유산기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347편 중 금강산 유산기가 전체의 15%인 51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지리산, 가야산, 청량산, 삼각산의 순이라고 한다.<sup>28)</sup> 2~4위에 드는 산이 영남 지역과 관련이 있는 산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29)</sup> 실제로 이 세 산의 유산기에 대해서는 자료 정리와

27) 홍원식, 「영남 유학과 ‘낙중학」, 『한국학논집』 제40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28) 박영민, 「유산기의 시공간적 추이와 그 의미」, 『민족문화연구』 제40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4.

29) 지리산 27편, 가야산 19편, 청량산 17편. 위의 논문, 81쪽. 이 통계는 『한국문집총간』과 일부 공간된 책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총량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연구가 이미 상당 부분 진척이 된 상태다. 이 밖에도 주왕산,<sup>30)</sup> 소백산,<sup>31)</sup> 태백산,<sup>32)</sup> 운문산,<sup>33)</sup> 학가산,<sup>34)</sup> 도덕산,<sup>35)</sup> 남해 금산<sup>36)</sup> 등에 대한 연구도 단편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영남의 주요 산을 유람하고 쓴 유산기의 경우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유명 문인이 쓴 것도 있지만 그 지역 문인이 쓴 것들도 굉장히 많다. 지역 문인이 쓴 유산기는 대체로 가전(家傳)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의 연구자가 아니면 발굴하기 어렵다. 또한 유산기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를 병행해야 하는데 이 점에서 지역 연구자가 이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유산기의 발굴과 연구는 지역문학의 연구 주제가 되기에 적합한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다. 한편 유산기와 더불어 영남의 최근 한문학 연구자들이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구곡시를 들 수 있다. 구곡시는 주자의 <무이구곡>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영남에서만 창작된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경상도 내륙 지방의 경우 깊은 산과 계곡이 발달함으로써 구곡의 기본 조건

---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참고한 것이다. 각 지역에서 직접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활발하게 발굴한 결과를 보면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이 보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리산의 경우 100여 편이 보고되고 있다. “강정화, 『조선시대 지식인의 지리산 읽기-『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남도문화연구』 제27집,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4.” 참조.

- 30) 이지양, 「조선중기 성리학자의 산수 감상 특징과 그 의미-여현 장현광의 <주왕산록>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29집, 한국고전문학회, 2006.
- 31) 임노직, 「소백산의 문학적 형상화 고찰」, 『한문학논집』 제38집, 근역한문학회, 2014.
- 32) 권경록, 「태백호현의 삶을 통해 본 봉화지역의 문학지리」, 『한국학연구』 제38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 33) 김명순, 「이경경의 운문산 유람과 <유운문산록>」, 『동방한문학』 제29집, 동방한문학회, 2009.
- 34) 임노직, 「학가산의 문학적 형상화」, 『퇴계학』 제22집,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14.
- 35) 김동협, 「몽암 이체의 생애와 <유도덕산록>」, 『어문론총』 제64집,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 36) 정용수, 「조선조 산수유람문학에 나타난 <록>체의 전통과 남해 금산」, 『석당논총』 제25집,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1997.



을 갖춘 곳이 많아 여러 문인들이 구곡경영을 일삼았다. 특히 영남문인들의 구곡경영은 기호문인들의 구곡경영과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구곡경영과 구곡시를 포함한 구곡문화에 대한 고찰은 영남학 연구의 일부로서 존재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산기와 구곡문화 연구의 대표적 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혜순·정하영·호승희·김경미 공저, 『조선중기의 유산기 문학』, 집문당, 1997.

최석기 외,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1~6, 돌베개·보고사, 2000~2013.

청량산박물관 저,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1~3, 민속원, 2007~2012.

김명순·이상동 옮김, 『청도 사족들의 운문산 유람록』, 청도문화원, 2009.

영남문화연구원, 『조선시대 학가산 유람록』, 안동시, 2012.

김문기, 『영남의 구곡문화』, 태학사, 2015.

### III. 영남문화연구원의 영남문학 연구 현황

영남문화연구원의 영남문학 연구 현황을 알아보기에 앞서 학계 일반의 영남문학 연구 현황을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정리한 결과를 간단히 밝히면 구비문학 분야에서는 인물전설·서사민요·동해안무가·탈놀이 등이, 고전시가 및 고전소설 분야에서는 조선전기 사대부시가·조선후기 규방가사·영남의 고전소설(영남 작가, 영남 배경, 필사본 유통) 등이, 한문학 분야에서는 퇴계학·남명학·강안학(또는 낙중학)·산수문학(유산기, 구곡시) 등이 영남문학의 주요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영남문화연구원의 영남문학 연구 현황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비교를 위해 기관지 『영남학』에 그 동안 게재되었던 문학 관련 논문을 호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영남학』에 수록된 문학 관련 논문 목록

호수	필자명	논문명	편수
제1호	조동일	『영남문학 연구의 과제와 인물전설의 의의』	1
제2호	·	·	0
제3호	김일렬	『취암문고 소장 한글본 고전소설 연구』	2
	황위주	『취암문고 소장 한시문선집 자료에 대하여』	
제4호	강구율	『<청량산유산기>에 나타난 영남지식인의 자연인식』	1
제5호	·	·	0
제6호	·	·	0
제7호	·	·	0
제8호	한의승	『학음 심원열의 『용창총설』에 대하여』	2
	오희정	『<어득강진>의 기법적 특징과 창작의식』	
제9호	이정화	『서에 유성룡의 설리시 연구』	3
	김정환	『이산 유제양의 한시 고찰』	
	백두현	『일본군에 강제 징병된 김종욱의 <춘풍감회록>에 대하여』	
제10호	권도경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전설’에 관한 연구』	3
	정우락	『서계 김담수의 전쟁체험과 그 문학적 대응』	
	한의승	『『어우야담』 이본 소개-경북대 소장본을 중심으로』	
제11호	강구율	『심재 조공섭 시세계의 제양상 연구』	2
	김남석	『극단 아랑의 극단 체제 개편 과정 연구』	
제12호	김재웅	『<김이양문록>의 창작방법과 가정소설적 의미』	2
	정병호	『한문소설 <유오승기> 해제 및 역주』	

제13호	최은주	「생활사의 시각에서 본 조선시대 한문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4
	최현희	「일제하 농민문학론의 담론 구조」	
	윤인현	「남명의 출처와 문학을 통해본 선비정신」	
	임철호	「조선족설화의 변이와 중국의 성격 고찰-한, 중 대결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14호	최천집	「〈양반전〉의 진, 가 확인형 소설로서의 면모」	3
	정천구	「『삼국유사』와 『사석집』의 효에 대한 인식 비교」	
	김진균	「1910년을 전후한 시기 변영만의 한문산문에 드러난 근대적 사유와 그 맥락」	
제15호	.	.	0
제16호	최은주	「18세기 어느 울산부사를 통해본 지방관 글쓰기의 실제 -청대 권상일의 울산부사 시절을 중심으로-」	2
	구현희 안상우	「의료설화를 통해본 명의 류의태의 자취 연구」	
제17호	김지연	「〈여용국전〉 연구」	2
	신태수	「퇴계 독서시에 나타난 ‘낙(樂)’의 층위와 그 성격」	
제18호	이종호	「영남선비들의 구곡경영과 최남복의 백련서사」	3
	김원준	「퇴계시에 나타난 꿈, 그 형상화의 의미」	
	한명환	「50년대 대구경북지역 군소작가들의 신문소설의 발굴과 의미-이정수, 김동사, 홍영의신문소설에 나타난 지역적 의미를 중심으로-」	
제19호	김철웅	「임의백의 활동과 <금시당연행일기>」	1
제20호	정우락	「산중도서관 ‘무흘정사 장서각’의 장서 성격과 의미」	2

	최천집	「<요로원야화기>의 가치 갈등과 그 의미」	
제21호	황위주	「성주 한문학의 역사적 전개양상」	2
	김원준	「퇴계와 율곡의 독서법 용어를 통한 고전독서이론의 모색」	
제22호	이세동	「한훤당 문학 연구의 과거와 미래」	2
	최은주	「지방수령의 지역에서의 교유와 문자 수수-19세기 상주목사 홍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23호	이구의	「서거정의 <후관어대부>에 나타난 자아의식」	4
	공근식	「호주 채유후 사환생활과 시세계」	
	김수현	「야담과 시대정신-‘효종미행’의 활용을 중심으로-」	
	정우락	「회당 장석영이 쓴 『흑산록』의 서술방식과 가치」	
제24호	손혜리	「낙하생 이학규의 <영남약부> 재론」	3
	한명환	「전후(1954~1960) 대구경북지역 신문소설의 특성과 의의」	
	정병호	「한문소설 <일석화> 역주 및 원문 표점」	
제25호	강구율	「한강문학 연구의 회고와 지향」	3
	이세동	「옥계 반우형과 <한빙계> 고찰」	
	신해진	「현전 <향병일기>의 선본 확정과 그 편찬의 경위 및 시기」	
제26호	이상하	「퇴계, 남명의 시와 대조적인 학문 성향」	3
	정우락	「남명 조식의 ‘물’ 인식과 인문정신」	
	김남석	「일제강점기 개성 지역 문화의 거점 ‘개성좌’ 연구 -1912년 창립부터 1945년까지-」	
제27호	차광호	「『삼국유사』 인용 『향전』과 『수이전』의 관련성 검토」	5
	김석배	「『야은선생행록』 연구」	

	정우락	「도산서원에 대한 문화론적 독해-일기와 기행록을 중심으로-」	
	이상균	「조선시대 사대부의 산수유관과 구곡 유람」	
	김태웅	「한유신과 『영언선』을 통해본 대구의 가곡문화」	
제28호	허권수	「동계 조형도의 생애와 그 시대」	3
	정우락	「동계 조형도 시에 나타난 ‘물’에 대하여」	
	최은주	「동계 조형도의 문학교류와 인맥네트워크」	
합계			48

『영남학』 창간호부터 28호까지 수록된 논문의 총 편수는 302편이다. 이 중 문학 관련 논문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8편이 실려 전체의 15.9%를 차지하고 있다. 문학 관련 논문의 호당 수록 편수를 보면 평균 1.7편 정도가 실렸는데, 최근에 나온 27호에 제일 많은 5편이 실린 반면 한 편도 실리지 않은 호도 5번이나 있다. 전반적으로 문학 관련 논문의 수록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표류한 것은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영남문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획 주제나 특집이 한 번도 없었다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물론 영남문화연구원의 궁극적 지향은 문학·역사·철학이 하나로 통합된 관점에서 영남학을 연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학 위주의 기획이나 특집은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합적 관점의 기획을 하는 가운데서도 역사<sup>37)</sup>나 철학<sup>38)</sup> 분야에서는 자기 분야에 치우친 기획을 여러 차례 진행한 것을 볼 때 문학 중심의 기획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은 분명 아쉬

37) 고문서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생활사 연구의 종합적 검토 등.

38) 한훤당 김굉필과 한국의 도학사상.

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라 하겠다.

연구원 차원의 기획이나 특집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투고자의 투고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 영남문화연구원의 영남문학 연구 실상은 앞서 살펴본 학계의 연구 현황과 꽤 거리가 존재한다. 앞서 분류한 대로 구비문학, 고전시가 및 고전소설, 한문학으로 나누어 간략히 점검해 보기로 한다.

구비문학 분야에서는 인물전설·서사민요·동해안무가·탈놀이 등이 영남문학과 관련된 학계의 주요 연구 대상임을 확인했었다. 이 중 영남문화연구원에서도 관심을 나타낸 것은 인물전설뿐이다. 창간호에 실린 조동일의 「영남문학 연구의 과제와 인물전설의 의의」를 포함하여 총 3편의 전설 관련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10호에 실린 권도경의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전설’에 관한 연구」는 영남의 지역전설을 자연전설, 지명유래전설, 인물전설, 인문전설 등으로 나누어 포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인물전설은 이 중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16호에 실린 구현희·안상우의 「의료설화를 통해 본 명의 류의태의 자취 연구」는 의료인의 관점에서 명의 류의태 관련 설화를 정리하고 분석한 것이다. 조동일의 논문은 창간호에서 인물전설의 연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고, 권도경의 논문은 영남의 지역전설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룬 것이며, 구현희·안상우의 논문은 의료인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물전설을 통해 영남문학과 영남문화의 특징을 밝혀주기를 기대한 애초의 취지<sup>39)</sup>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물전설의 경우는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나 그 밖의 서사민요·동해안무가·탈놀이 등은 아예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이는 고전시가 및 고전소설 분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학계에서는 조선전기 사대부시가, 조선후기 규방가사, 영남 작가나 영남을 배경으로 한 고

---

39) 조동일은 “인물전설에서 주장하는 바(상하의 우열 뒤집기)는 관철되지 못하고 억압되었기 때문에 생생한 의의를 잃지 않고 있으며 미래의 역사를 창조할 저력 노릇을 한다.”고 하였다. “조동일, 앞의 논문, 68쪽.” 참조. 이로 미루어 조동일은 인물전설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를 통해 현대사회와 미래 역사를 창조할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기를 바랐던 것 같다.

전소설 및 고전소설의 필사본 유통 문제 등을 영남문학의 주요 테마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 중 고전소설 방면에서 약간의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 3호에 실린 김일렬의 「취암문고 소장 한글본 고전소설 연구」는 영남의 사업가가 주로 영남지역에서 수십 년간 수집해온 자료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잘 엮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영남지역에서의 고전소설 유통 상황을 점검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준 논문이라 할 수 있다. 12호에 실린 김재웅의 「〈김이양 문록〉의 창작방법과 가정소설적 의미」는 영남지역 필사본 고전소설의 유통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필자가 〈김이양문록〉의 새로운 이본인 계명대본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필사본 가정소설이 기존 작품을 수용하여 다양하게 재창조되어 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한 논문이다. 이런 고전소설 분야에 비해 고전시가 분야의 경우는 학계의 동향과는 일정한 거리를 보여주고 있다. 고전시가 논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9호에 실린 백두현의 「일본군에 강제 징병된 김종옥의 〈춘풍감회록〉에 대하여」는 일제에 징병되어 온갖 고초를 겪다가 살아서 돌아온 작가가 귀국 후인 1947년에 저간의 감회를 읊은 가사를 소개한 것으로 해방 이후에도 가사가 창작된 실상을 보여주는 소중한 것이다. 27호에 실린 김태웅의 「한유신과 『영언선』을 통해 본 대구의 가곡문화」는 대구의 가곡 실상을 보여주는 가집 편찬과 관련된 연구이다. 이들 연구는 그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나 조선전기 사대부시가와 조선후기 규방가사에 집중된 학계의 동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한문학 분야는 구비문학이나 고전문학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는 성과가 엿보인다. 학계에서는 퇴계학·남명학·강안학(또는 낙중학)·산수문학(유산기, 구곡시) 등이 영남문학의 주요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였는데, 구비문학이나 고전문학 분야와 달리 일단 이들 영역과 관련된 연구들이 골고루 확인되고 있다. 김석배의 「『아은선생행록』 연구」, 이세동의 「한훤당 문학 연구의 과거와 미래」 및 「옥계 반우형의 〈한빙계〉 고찰」 등에서 보는 것처럼 퇴계와 남명 이전의 영남사림과문학에서부터 퇴계·

남명·한강의 문학은 물론이고 이중호의 「영남선비들의 구곡경영과 최남복의 백련서사」, 정우락의 「회당 장석영이 쓴 『흑산록』의 서술방식과 가치」 등 조선후기 영남학파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다양한 편폭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아마도 한문학이 상대적으로 역사나 철학과 공동 기획으로 참여하기가 용이하다는 점과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구성에 한문학 전공자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그런데 비교적 다양한 편폭을 보여주는 가운데서도 김굉필, 김담수, 정구, 장석영 등 성주·칠곡 지역 문인들의 문학을 주로 다루거나 황위주처럼 성주 한문학의 역사적 전개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들 연구는 이른바 강안학(또는 낙중학)이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독립시키고자 하는 학계 일부의 시도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여러 논자들의 연구가 아직 강안학(또는 낙중학)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합의·수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IV. 영남문화연구원의 영남문학 연구 방향-결론을 대신하여

이상에서 학계의 영남문학 연구 현황을 고찰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삼아 영남문화연구원의 영남문학 연구 현황을 점검해 보았다. 그 결과 극히 일부의 성과를 제외하면 학계 일반의 연구 경향이나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연구원이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16년 전 연구원 창립 당시 이를 통해 영남학 정립의 계기를 마련하고 영남학 연구를 가장 선도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반성은 명확한 방향 제시를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영남문화연구원이 추구해야 할 영남문학 연구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제시한 학계 일반의 영남문학 연구 현황에 답이 거의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제시한 결과는 각 분야



별로 3~4개 영역씩 세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추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앞서 제시한 것들 중 분야별로 한두 가지씩만 선정하여 이에 대한 연구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구비문학 분야에서는 앞서 제시한 네 가지 중 서사민요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동해안무기는 울산 지역에서, 탈놀이는 탈놀이 공연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가 이 두 영역의 경우는 민속학 연구자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경북 내륙에 위치한 영남문화연구원이 주력해야 할 구비문학 영역은 인물전설과 서사민요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서사민요는 가장 보수적인 경북 내륙 지역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면서 규방가사와 포개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고전시가 분야에서는 조선전기 사대부시가와 조선후기 규방가사 중 조선 후기 규방가사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한다. 조선전기 사대부시가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데다 영남문화연구원이 책무를 갖고 임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규방가사는 얘기가 다르다. 논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규방가사는 영남지방 특유의 문화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리고 아직도 창작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수집되거나 정리되지 않은 자료들이 수도 없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남 지역의 연구자와 영남 지역 연구기관의 선도적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규방가사 연구는 교육적 차원이나 문화관광적 차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구원 차원의 기획 과제로 설정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많이 존재한다고 하겠다. 고전소설의 경우 역시 소설 유통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런데 기존에 해온 방식대로 필사본 유통 문제에만 국한하지 말고 방각본 유통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김일렬의 「취암문고 소장 한글본 고전소설 연구」에 따르면 취암문고 소장 방각본은 모두 완판본

이고 경판이나 안성판은 전무하다고 한다. 이를 두고 김일렬은 “경북지방, 크게는 영남지방에서는 실제로 목판본 소설 중에서 완판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는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그러한 현상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sup>40)</sup>고 하였다. 취암문고에서만 그런 건지 아니면 영남지역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한문학의 경우는 강안학(또는 낙중학)과 산수문학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퇴계학과 남명학은 굳이 영남문화연구원이 담당하지 않아도 된다. 퇴계학은 퇴계학회 · 퇴계학연구원을 비롯하여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등이 있고, 남명학 또한 남명학회 · 남명학연구원 ·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등이 있어 이미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고, 향후에도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가능성이 여전하다. 따라서 영남문화연구원이 퇴계학이나 남명학을 따라할 필요는 없을 듯하고 굳이 하겠다고 한다면 『영남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퇴계학과 남명학을 아우를 수 있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기존의 연구기관들과 차별화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퇴계학과 남명학을 아우르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양자의 회통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 바로 강안학(또는 낙중학)이기 때문에 이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안학(또는 낙중학)은 지금은 극히 일부 논자들에 의해 주창되는 측면이 있지만 독립적으로 고찰할 만한 실질적 내용이 존재하고 그 의의 또한 충분하기 때문에 영남문화연구원이 지향해야 할 핵심 방향이 아닌가 한다. 다만 개념과 범주 설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한문학과 사상사 이외의 전공자들을 논의의 구도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유산기와 구곡시를 중심으로 한 산수문학은 영남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밀착된 조사와 연구를 위해 영남문화연구원이 담당하기 좋은 영역이다. 이 역시 구곡가, 화전가, 기행가사 등 고전시가와

---

40) 김일렬, 「취암문고 소장 한글본 고전소설 연구」, 『영남학』 제3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3.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이 논문은 2016년 2월 26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6년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4월 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부록】 ‘영남문학 연구 논저 목록’으로 대신함.

Abstract

## A Study on the Current Research State and Future Tasks of Yeongnam Literature

- With a focus on the Yeongnam Culture Institute -

Lee, Sang-won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check the current research state of Yeongnam literature at the Youngnam Culture Institute and propose its future directions by comparing it with that of academic circles.

The study first categorized the current research state of Yeongnam literature in the academia into oral literature, classical poems and novels, and Chinese literature. In the area of oral literature, the focus was on legends of figures, narrative folksongs, shamanistic songs of East Coast, and mask play. In the area of classical poems, the focus was on the poems of noblemen in the former half of Joseon and the Gyubanggasa in the latter half of Joseon. In the area of classical novels, the research focus was on the writers, backgrounds of works, and patterns of distributions. Finally in the area of Chinese literature, the focus was especially on Toigye studies, Nammyeong studies, Gangan studies, and landscape literature.

The study then compared the current research state of Yeongnam literature in the academic circles with that of Youngnam Culture Institute and found that the latter lagged far behind the former in research achievements. The institute is thus required to make more strenuous efforts in the future, and the study proposed its directions

of focus in such efforts including narrative folksongs in oral literature, Gyubanggasa in classical poems, distribution of novels in classical novels, and Gangan studies and landscape literature in Chinese literature.

**Keywords** : Gangan studies, Gyubanggasa, narrative folksongs, Yeongnam Culture Institute, Yeongnam literature

【부록】 영남문학 연구 논저 목록

1. 단행본

-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편, 『18세기 영남의 한문학-봉화지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5.
- 고단, 『소고당 규방가사 속집 전』, 삼성사, 1999.
- 구미문화원 편, 『규방가사집』, 구미문화원, 1984.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가산오광대』,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 권영철, 『규방가사 1』, 한국가사문학관, 2002.
- 권영철, 『규방가사 각론』, 형설출판사, 1986.
- 권영철, 『규방가사 개설』,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 권영철, 『규방가사 : 신변탄식류』, 효성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 권영철, 『규방가사 연구』, 이우출판사, 1980.
- 권태을, 『상주한문학』, 문창사, 2002.
- 김광순 · 소재영 · 임재해 · 신태수, 『망우당전설의 의미와 전승양상』, 망우당기념사업회, 1992.
- 김문기, 『경북의 구곡문화』, 경상북도 ·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
- 김문기, 『문경의 구곡원림과 구곡시가』, 한국학술정보, 2005.
- 김문기, 『영남의 구곡문화』, 태학사, 2015.
- 김수경, 『규방가사, 공유 · 소통 · 치유의 글쓰기』, 보고서, 2014.
- 김인경 · 조지형 율김, 『황중윤 한문소설』, 새문사, 2014.
- 김일렬, 『숙영낭자전 연구』, 역락, 1999.
- 김재웅, 『대구 · 경북지역의 설화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7.
- 김재웅, 『필사본 고소설의 지역별 유통 양상과 향유층에 대한 실증적 연구』, 역락, 2015.
- 김종순, 『최송설당 문학 연구』, 경인문화사, 2008.
- 김준형 외 5인, 『옥동 문익성 및 그 후예들의 학문과 문학』, 술이, 2008.
- 김태근,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1.
- 김태근, 『한국의 무속신화』, 집문당, 1989.
- 김해민속예술보존회 편, 『김해가락오광대』, 박이정, 2004.

- 나정순,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 동방한문학회 편, 『갈천 임훈과 첨모당 임운 연구』, 보고사, 2002.
- 박경신, 『한국의 별신굿 무가』(전12권), 국학자료원, 1999.
- 박경주, 『규방가사의 양성성』, 월인, 2007.
- 박진태, 『전통공연문화의 이해』, 태학사, 2012.
- 박진태, 『통영오광대』, 화산문화, 2001.
- 박진태, 『하회별신굿탈놀이』, 피아, 2006.
- 박진태, 『한국 민속극 연구』, 새문사, 1998.
- 박진태, 『한국탈놀이의 미학』, 태학사, 2014.
- 봉화문화원 편, 『우리고장의 민요와 규방가사』, 봉화문화원, 1995.
- 서신혜, 『김소행의 글쓰기 방식과 삼한습유』, 박이정, 2004.
- 서연호, 『야유, 오광대 탈놀이』, 열화당, 1989.
- 서영숙, 『한국 서사민요의 날실과 씨실 : 우리 어머니들의 노래』, 역락, 2009.
- 서영숙, 『한국 여성가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6.
- 손오규, 『퇴계 시가예술연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2.
- 신영명, 『사대부시가의 연구』, 국학자료원, 1996.
- 심상교, 『고성오광대』, 화산문화, 2000.
- 심우성 편, 『한국의 민속극』, 창작과비평사, 1975.
- 안동문화연구소, 『하회탈과 하회탈춤의 미학』, 사계절, 1999.
- 영남문헌연구원, 『조선시대 학가산 유람록』, 안동시, 2012.
- 영천시 편, 『규방가사집』, 영천시, 1988.
- 울진문화원 편, 『울진민요와 규방가사』, 울진문화원, 2001.
- 운동환, 『동해안 무속의 지속과 창조적 계승』, 민속원, 2010.
- 이균옥, 『동해안 지역 무극 연구』, 박이정, 1998.
- 이동영, 『조선조 영남시가의 연구』, 부산대학교 출판부, 1984.
- 이재수, 『내방가사 연구』, 형설출판사, 1976.
- 이정아, 『시집살이 노래와 말하기의 욕망』, 해안, 2010.
- 이정옥,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 박이정, 1999.
- 이정옥, 『영남내방가사』, 국학자료원, 2003.
- 이정화, 『퇴계 이황의 시문학 연구』, 보고사, 2003.
- 이휘, 『소정가사』, 이회문화사, 2003.



- 임동권, 『한국부요 연구』, 집문당, 1982.
- 임재해, 『안동의 비보풍수 이야기-영남산 여근형국에 관한 풍수 전설과 신앙』, 민속원, 2004.
- 임재해, 『하회탈, 그 한국인의 얼굴』, 민속원, 2005.
- 임재해 외 4인, 『동아시아 민속극의 축제성』, 보고서, 2008.
- 전경욱, 『한국 가면극, 그 역사와 원리』, 열화당, 1998.
- 전재강, 『남명과 한강의 만남』, 보고서, 2010.
- 전재진, 『19~20세기 초 시조의 지역 문화적 연구』, 세종출판사, 2013.
- 정길자, 『규방가사의 사적 전개와 여성의식의 변모』, 한국학술정보, 2005.
- 정병훈, 『진주 오광대 탈놀음』, 지식산업사, 2007.
- 정상박, 『오광대와 들놀음 연구』, 집문당, 1986.
- 정우락, 『남명문학의 현장』, 경인문화사, 2006.
- 조동일, 『서사민요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70.
-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학교 출판부, 1979.
- 조동일, 『지방문학사 연구의 방향과 과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흥성사, 1979.
- 조애영, 『은촌내방가사집』, 금강출판사, 1971.
- 조혜란, 『19세기 서얼 지식인의 대안적 글쓰기 : 『삼한습유』』, 소명출판, 2011.
- 청량산박물관 저,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1~3, 민속원, 2007~2012.
- 최규수, 『규방가사의 ‘글하기’ 전략과 소통의 수사학』, 명지대학교 출판부, 2014.
- 최상수, 『야유, 오광대 가면극의 연구』, 성문각, 1984.
- 최석기 외,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1~6, 돌베개 · 보고서, 2000~2013.
- 최송설당 저, 정후수 · 신경숙 · 김종순 공역, 『송설당의 시와 가사』, 어진소리, 2004.
- 최운식 외, 『전설과 지역문화』, 민속원, 2002.
- 최재남, 『경남문학의 원류와 자장』,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3.
- 최재남, 『사립의 향촌생활과 시기문학』, 국학자료원, 1997.
- 최정여 · 서대석, 『동해안무가』, 형설출판사, 1974.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규방가사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규방가사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민속원, 1998.

홍태한, 『서사무가 <당금애기> 연구』, 민속원, 2000.

홍태한, 『한국 서사무가 연구』, 민속원, 2002.

황중윤, 『황동명소설집』, 문학과언어연구회 영인, 1984.

황충기, 『노계 박인로 연구』, 국학자료원, 1994.

## 2. 학위논문

고석진, 「고성오광대 덧배기 장단 연구 : 2과장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논문, 2013.

곽현희, 「무가 ‘심청굿’의 전승구조와 주술적 기능」, 중앙대 석사논문, 1995.

권영목, 「화전가류 규방가사의 특징 고찰 : 정서적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논문, 1997.

권현주, 「소정가사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2009.

김경미, 「병신춤의 민중적 미의식 연구 : 밀양백중놀이를 중심으로」, 부산대 석사논문, 1999.

김광조, 「송암 권호문의 시가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5.

김구한, 「동해안 세습무 김영희의 무가 사설 연구」, 울산대 박사논문, 2008.

김동규, 「제문가사 연구 : 규방가사 장르에 있어서」, 효성여대 석사논문, 1978.

김동협, 「황중윤 소설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1990.

김래영, 「영등오광대 연희 작품 분석 연구」, 경상대 석사논문, 2013.

김미숙, 「경남 향토무용 연구 : 밀양 백중놀이 중 양반춤과 범부춤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2.

김민주,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성결대 석사논문, 2006.

김복희, 「신변탄식류 규방가사에 나타난 꿈의 양상 연구」, 부경대 석사논문, 2006.

김선영, 「동해안 서사무가 <심청굿>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9.

김선주, 「학사 김응조의 삶과 시세계」, 안동대 석사논문, 2008.

김수영, 「『천군기』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1.

김연화, 「탈춤의 춤사위 비교 연구 : 동래야유, 양주별산대놀이, 봉산탈춤의 말뚝이춤을 중심으로」, 부산대 석사논문, 1990.

김옥선, 「규방가사의 혼인갈등 양상과 여성의식의 변화」, 성균관대 석사논문,

- 2007.
- 김은경, 「경남가면무의 미적 연구 : 문둥이춤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 1979.
- 김용미, 「동래야유의 탈춤에 관한 연구 : 배김사위를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논문, 1982.
- 김우중, 「십청 전승의 형성과 십청굿의 변모 양상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2014.
- 김유미, 「하회별신굿 탈놀이의 표현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8.
- 김윤희, 「주세붕의 국문시가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5.
- 김은정, 「아랑전설의 축제화 양상과 그 사회 문화적 의미」, 안동대 석사논문, 2003.
- 김정동, 「대산 이상정 시의 유형적 성격과 도학시적 양상」, 경산대 석사논문, 2002.
- 김종태, 「검감 조정의 진사일록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0.
- 김주부, 「식산 이만부의 산수기행문학 연구-『지행록』과 『누항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논문, 2010.
- 김주희, 「전통탈춤 고성오광대 대중화 양상 연구 : ‘The 광대’ 연희컬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 2011.
- 김중기, 「신재 주세붕의 교훈시조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2006.
- 김철호, 「규방가사와 여성의 자아인식 : 신변탄식류를 중심으로」, 부산외대 석사논문, 1993.
- 김초영, 「통영오광대 복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2011.
- 김현일, 「학봉 김성일 한시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2013.
- 김홍중, 「규방가사에 투영된 이조 여인상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77.
- 남영숙, 「화진가의 여성문학적 성격 연구」, 창원대 석사논문, 2012.
- 노금선, 「동래야유와 강령탈춤의 비교 연구 : 말뚝이 춤을 중심으로」, 동아대 석사논문, 1987.
- 류경자, 「남해군 전승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2010.
- 박기원, 「동해안 십청굿 사설 연구」, 강릉대 석사논문, 1994.
- 박선애, 「규방가사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 영남지방 자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 석사논문, 2001.
- 박선애, 「시집살이노래 연구 : <가출형 며느리노래>를 대상으로」,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5.
- 박성아, 「고성오광대에 내재된 연회적 특성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4.
- 박찬미, 「탈춤의 변천양상에 대한 사회미학적 일고찰 : 하회별신굿 탈놀이와 봉산탈춤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논문, 1991.
- 박춘우, 「규방가사의 글쓰기 방법 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2008.
- 배주옥, 「하회별신굿 탈놀이 춤사위 구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5.
- 백기숙, 「내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1991.
- 백순철,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사회적 성격」, 고려대 박사논문, 2001.
- 백순철, 「문답형 규방가사의 창작환경과 지향」, 고려대 석사논문, 1995.
- 백은주, 「여성가사 연구 : 여성중심적 시각으로 재조명」, 숙명여대 석사논문, 1991.
- 서신혜, 「<삼한습유>의 문헌 수용 양상과 변용 미학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2003.
- 석진주, 「이학규의 <영남악부> · <해동악부>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5.
- 성옥련, 「한국 규방가사 문학 고」, 경북대 석사논문, 1962.
- 손영화,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 놀이 기반 규방가사의 여성놀이문화 중심으로」, 전북대 박사논문, 2009.
- 손오규, 「퇴계의 산수문학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0.
- 송재연, 「고응척의 시가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4.
- 송현자, 「대산 이상정의 시세계 연구」, 안동대 석사논문, 2009.
- 신정연, 「조선후기 규방문화에서 치산활동의 전개과정」,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4.
- 신혜경, 「노계가사에 나타난 사상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1996.
- 심수철, 「근시재 김해의 생애와 문학세계」, 안동대 석사논문, 2013.
- 안선영, 「계녀가사의 구성양상과 서술특성 : 남성, 여성 화자의 차이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5.
- 안승옥, 「규방가사에 나타난 자아발견의 양상」, 동아대 석사논문, 1986.
- 양지혜,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형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8.

- 엄경섭, 「남성화자 계녀가사의 연구 : 조선시대 아버지상의 규명을 중심으로」, 동아대 석사논문, 2012.
- 엄경원, 「규방가사에 나타난 풍류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1992.
- 엄원대, 「영사악부의 춘추대의적 연구 : 신라소제의 반복적 모티브를 중심으로」, 경성대 박사논문, 1999.
- 염동락, 「〈달천몽유록〉에 나타난 역사의식의 두 면모 : 윤계선의 의리관과 황중윤의 시비사정의 역사의식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논문, 1998.
- 오인빈, 「신변탄식류 규방가사의 문학치료적 기능」, 원광대 석사논문, 2007.
- 오현진, 「강해 장삼학의 생애와 문학세계」, 안동대 석사논문, 2013.
- 우연실, 「은촌 조애영의 시가 연구」, 대구대 석사논문, 2014.
- 원종인, 「서사적 규방가사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2009.
- 유미랑, 「동래야류의 변화양상과 그 의미」, 고려대 석사논문, 2012.
- 윤보경, 「고성오광대의 원양반춤과 말뚝이 춤사위에 관한 비교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1989.
- 이경복, 「심청굿 연구」, 명지대 석사논문, 1975.
- 이국진, 「이학규 한시의 표현기법과 미적 특질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11.
- 이균대, 「오광대의 지역문화성 연구 : 전승과정을 중심으로」, 경남대 석사논문, 2002.
- 이균옥, 「야유, 오광대 연구」, 경북대 석사논문, 1985.
- 이동숙, 「통영오광대의 신명적 특성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6.
- 이동영, 「조선조 영남시가의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984.
- 이명호, 「이현보 시가 사상 연구」, 서원대 석사논문, 2002.
- 이미정, 「각 지방별 탈춤의 말뚝이마당 춤사위 특성 비교에 관한 연구 : 봉산탈춤, 양주별산대놀이, 동래야유를 중심으로」, 용인대 석사논문, 2004.
- 이상동, 「청도 한문학의 역사적 전개-지역한문학 연구를 위한 시론-」, 영남대 박사논문, 2011.
- 이선경, 「탄식류 규방가사의 내면의식 연구」, 대구대 석사논문, 1999.
- 이순혜, 「심청굿 연행에 따른 사설의 구성과 변이 양상」, 부산대 석사논문, 1996.
- 이연순, 「점필재 김종직의 악부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0.
- 이영희, 「조선조 영남사림과 시가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2.

- 이은미, 「규방가사의 표현특성과 여성의식 연구 : T부이별 모티프 가사를 대상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3.
- 이정아, 「시집살이 노래 구연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과 여성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6.
- 이정화, 「퇴계시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2003.
- 이진희, 「영남의 지역문화브랜드로서 오광대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방안」, 경상대 석사논문, 2013.
- 이현경, 「계녀가류 규방가사 연구 : 형식 구분을 중심으로」, 원광대 석사논문, 2003.
- 이현주, 「동래 덧배기춤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5.
- 이희주, 「동해안 서사무가의 편입가요 연구」, 동아대 박사논문, 2004.
- 임미자, 「규방가사 연구 :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논문, 1991.
- 임종록, 「조선조 사회의 여성윤리 연구 : 내훈과 규방가사를 중심으로」, 계명대 석사논문, 1984.
- 임혜자, 「경북 가면무의 미적 연구 : 하회별신 탈춤을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논문, 1980.
- 장미애, 「규방가사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 연구 : 특히 시집살이 사설을 중심으로」, 효성여대 석사논문, 1988.
- 장봉수, 「조선중기 영·호남 한문학의 성격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2015.
- 장인숙, 「동래야유 가면무의 미의식 연구」, 동아대 박사논문, 1997.
- 전현숙, 「규방가사의 현실인식 : 신변탄식가를 중심으로」, 강원대 석사논문, 1993.
- 정길자, 「규방가사에 나타난 결핍과 실현의 심리적 성격」, 숙명여대 석사논문, 1993.
- 정길자, 「규방가사의 사적 전개와 여성의식의 변모」, 숙명여대 박사논문, 2003.
- 정동화, 「퇴계 이황의 산수시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1993.
- 정상박, 「오광대와 들놀이 연구 : 대사 분석을 중심으로」, 부산대 박사논문, 1984.
- 정선희, 「<중옥전>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4.
- 정영순,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 갈등 해소 양상」, 강남대 석사논문, 2003.

- 정우락, 「남명문학의 경의사상 표출방법과 작가의식」, 경북대 석사논문, 1992.
- 정우락, 「남명문학의 의미표출양상과 현실주의적 성격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1997.
- 정은주, 「낙하생 이학규 문학의 변모 양상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11.
- 정의영, 『『삼한습유』 연구』, 대구대 박사논문, 2003.
- 정중환, 「산청지역 서사민요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2004.
- 정태형, 「이재가사 연구 : 송강가사와 비교를 중심으로」, 전남대 석사논문, 1993.
- 조경순, 「시집살이 민요 연구 : 서사민요를 중심으로」, 창원대 석사논문, 2009.
- 조미정, 「하회별신굿 탈춤과 강릉관노 탈춤의 비교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1992.
- 조선영, 「가사문학에 나타난 유교이념과 그 표현미학 연구 : 사대부가사와 규방가사를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논문, 1999.
- 조안나, 「<사대기>의 표현특질과 주제의식」, 고려대 석사논문, 2014.
- 조연정, 「규방가사의 여성의식 연구」, 대구가톨릭대 석사논문, 2002.
- 조자현, 「조선후기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경제현실 및 세계인식」, 한양대 박사논문, 2012.
- 조정현, 「별신굿의 전승력과 축제적 연행의 원형」, 안동대 박사논문, 2008.
- 조진희, 「화답형 규방가사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04.
- 조혜란, 「『삼한습유』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4.
- 주진니, 「조선후기 규방가사와 명말청초 여성 시사의 비교 연구 : 부부 간의 이별을 노래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충북대 석사논문, 2015.
- 최선미, 「송암 권호문 시가의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4.
- 최정희, 「규방가사의 민속문학적 성격 연구 : 부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논문, 1989.
- 한길로, 『『양선생왕복서』 연구 : 퇴계와 고봉의 시문의식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논문, 2011.
- 한명, 「규방가사의 형성과 변모양상 연구」, 전주대 박사논문, 2002.
- 한정남, 「규방가사 연구」, 명지대 석사논문, 1995.
- 한지민, 「규방가사의 현대적 계승 양상 연구 : 이휘, 김정진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 석사논문, 2008.

허윤진, 「18세기 이후 여성 자서전적 글쓰기의 문화시학적 연구」, 서강대 박사 논문, 2014.

홍성숙, 「동래야류의 양반과장에 관한 연구」, 세종대 석사논문, 1993.

황경숙, 「동래야류 연구 : 양반과장에 나타난 세계관을 중심으로」, 부산대 석사 논문, 1990.

### 3. 논문

강경호, 「19세기 가사의 향유 관습과 이본 생성-〈노처녀가2〉와 그 관련 작품을 통해본 가사 향유의 한 양상」, 『반교어문연구』 제18집, 반교어문학회, 2005.

강구율, 「심재 조공섭 시세계의 제양상 연구」, 『영남학』 제11호, 경북대학교 영남학연구원, 2007.

강구율, 「청량산 유산기에 나타난 영남지식인의 자연인식」, 『영남학』 제4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3.

강구율, 「응와 이원조의 생애와 시세계의 몇 국면」,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39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6.

강구율, 「한강문학 연구의 회고와 지향」, 『영남학』 제25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4.

강구율, 「훈 · 지수 정만양 · 규양 형제의 시세계의 일단」, 『동방한문학』 제28집, 동방한문학회, 2005.

강등학, 「〈정자소리〉의 분포와 장르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민요학』 제29집, 한국민요학회, 2010.

강민구, 「구암 이정과 사천 · 진주 지역의 퇴계학과-이정의 성리학 연찬과 문학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31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2.

강민구, 「낙재 서간을 통해 본 17세기 영남 서간의 특질」, 『동방한문학』 제30집, 동방한문학회, 2006.

강석근, 「가사문학의 발달사적 관점에서 본 용담유사의 특징과 맥락」, 『한국사상과 문화』 제70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3.

강용권, 「가산오광대의 특성」, 『국어국문학』 55~57합집, 국어국문학회, 1972.



- 강용권, 「합천 밤마리와 오광대, 들놀이 소고」, 『석당논총』 제21집,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1995.
- 강정화, 「남명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남명학연구』 제35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2.
- 강정화, 「조선시대 지식인의 지리산 읽기-『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남도문화연구』 제27집,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4
- 강정화, 「지리산권과 지식인의 문화 : 산수를 중심으로」, 『남도문화연구』 제13집,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07.
- 강정화, 「지리산 유람록 연구의 현황과 과제」, 『남명학연구』 제46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5.
- 강정화, 「지리산 유산기에 나타난 조선조 지식인의 산수인식」, 『남명학연구』 제26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 강정화, 「탁영 김일손의 지리산유람과 <속두류록>」, 『경남문화연구』 제31집,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2010.
- 강종임, 「『태평광기』 속의 허구적 신라-‘유성신’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제62집, 영남중국어문학회, 2013.
- 강중탁, 「영남 내방문학교」, 『명지어문학』 제2집, 명지어문학회, 1961.
- 강진우, 「하회탈춤의 신명 구현 원리」, 『국어교육연구』 제46집, 국어교육학회, 2010.
- 고순희, 「규방가사 <추월감> 연구 : 한 여인의 피난생활과 좌우 갈등」, 『고시가연구』 제10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2.
- 고순희, 「만주망명가사 <간운스>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37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 고순희, 「만주망명 여성의 가사 <원별가라> 연구」, 『국어국문학』 151호, 국어국문학회, 2009.
- 고순희,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문학-자료 및 작가를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제2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2.
- 고순희, 「안동의 지역성과 만주 망명 관련 가사문학-지역문화콘텐츠 제안」,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35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5.
- 고순희, 「일제강점기 가일마을 안동권씨 가문의 가사 창작 : 향일가사 <꽃노래>와 만주망명가사 <눈물 뿌린 이별가>」, 『국어국문학』 155호, 국어국문학회, 2011.

- 학회, 2010.
- 고순희, 「일제강점기 일본 경험과 규방가사」, 『동북아문화연구』 39,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2014.
- 구사회, 「새로운 가사 작품 <감별곡>에 대하여」, 『고시가연구』 제26집, 한국고 시가문학회, 2010.
- 구사회, 「한창기본 <숙영낭주전> 소재 가사 작품 8편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제41집, 열상고전연구회, 2014.
- 구현희 · 안상우, 「의료설화를 통해본 명의 류의대의 자취 연구」, 『영남학』 제16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 권경렬, 「탁영 김일손의 문학과 정치적 역할」, 『남명학연구』 제20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5.
- 권경록, 「'대백오현'의 삶을 통해 본 봉화지역의 문학지리」, 『한국학연구』 제38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 권도경, 「대구·경북 지역의 '지역전설'에 관한 연구」, 『영남학』 제10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6.
- 권두환, 「영남지역 가단의 성립과 그 계승」, 『국문학연구』 제12집, 국문학회, 2004.
- 권순희, 「<단가삼결>의 창작 맥락과 시적 지향」, 『한국시가연구』 제8집, 한국시 가학회, 2000.
- 권순희, 「조룡 형태의 놀이로서의 규방가사」, 『민족문화연구』 제42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5.
- 권순희, 「화진가류 가사의 창작 및 소통 맥락에 대한 재검토」, 『어문논집』 제53집, 민족어문학회, 2006.
- 권연웅, 「영남문화 :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영남학』 창간호, 경북대학교 영남 문화연구원, 2001.
- 권영철, 「규방가사 개설」, 『민족문화논총』 제11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 권영철, 「규방가사에 나타난 신변탄식류의 연구」, 『여성문제연구』 제10집, 대구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1.
- 권영철, 「규방가사에 있어 풍류소영류 연구」, 『여성문제연구』 제11집,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2.

- 권영철, 「규방가사 연구(一)」, 『연구논문집』 제8집, 대구가톨릭대학교, 1971.
- 권영철, 「규방가사 연구(二)」, 『연구논문집』 제10집, 대구가톨릭대학교, 1972.
- 권영철, 「규방가사 연구(三)-계녀교혼류를 중심으로-」, 『연구논문집』 제16집, 대구가톨릭대학교, 1975.
- 권영철 · 김동규, 「규방가사에 나타난 조선시대 여성의 노동제상」, 『여성문제연구』 제19집,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1.
- 권영철 · 이운석 · 김효중 · 장성진 · 박혜숙, 「내간문학 연구-규방가사 연구 각론(1)」, 『여성문제연구』 제13집,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 권오경, 「김사엽의 민요관과 민요 조사 · 연구의 특징」, 『한국민요학』 제34집, 한국민요학회, 2012.
- 권오경, 「낙동강문화와 부산문화의 소통-구비전승문학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제22집, 동남어문학회, 2006.
- 권진호, 「사미현 장복추의 학문활동과 산문세계」, 『어문론총』 제45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6.
- 권진호, 「여헌 장현광의 문론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제18집, 동양한문학회, 2003.
- 권진호, 「영남문인의 문학적 경향-『퇴계학자료총서』를 중심으로-」, 『퇴계학』 제17집,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8.
- 권태을, 「규방가사를 통해본 사별인식고-숙명론에 선 과부가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13집, 한민족어문학회, 1986.
- 권태효, 「규방가사 <붕우이별가라>로 본 각편 읽기 방법론」, 『우리어문연구』 제25집, 우리어문학회, 2005.
- 권현주, 「『소정가사』의 문학적 연구」, 『동양예학』 17집, 동양예학회, 2007.
- 김경미, 「19세기 소설사의 한 국면-성 표현 관습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 김광순, 「김광순 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의 현황과 자료적 가치」, 『국학연구론총』 제11집, 태민국학연구원, 2013.
- 김기현, 「<문경새재소리아리랑>의 아리랑사적 위상」, 『한국민요학』 제29집, 한국민요학회, 2010.
- 김기현, 「<시집살이노래>의 구연 특성과 그 의미-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어문

- 론총』 26호, 한국문학언어학회, 1992.
- 김기현, 「아리랑노래의 형성과 전개」,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35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4.
- 김남기, 「덕계 오건의 시문학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9집, 한국문학회, 2005.
- 김남기, 「신암 이만각의 생애와 시세계 연구」, 『한국한시연구』 제19집, 한국한시학회, 2011.
- 김남희, 「주제집단에 따른 야류와 오광대 비교 연구」, 『문창어문논집』 제46집, 문창어문학회, 2009.
- 김동규, 「규방가사에 나타난 현세관과 내세관 : 제문가사와 신변탄식류를 중심으로」, 『논문집』 제2집, 경동전문대학, 1993.
- 김동규, 「제문가사 연구 : 규방가사 장르에 있어서」, 『여성문제연구』 제8집,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79.
- 김동협, 「〈달천몽유록〉 고찰」, 『국어교육연구』 제16집, 국어교육학회, 1985.
- 김동협, 「동명 황중운의 소설관과 생애」, 『국어교육연구』 제20집, 국어교육학회, 1988.
- 김동협, 「몽암 이채의 생애와 〈유도덕산록〉」, 『어문론총』 제64집,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 김동협, 「〈사대기〉 고찰」, 『논문집』 제8집,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1989.
- 김명순, 「이중경의 운문산 유람과 〈유운문산록〉」, 『동방한문학』 제29집, 동방한문학회, 2009.
- 김명순, 「조선시대 청도 사족의 산수문학 연구」, 『동방한문학』 제18집, 동방한문학회, 2009.
- 김문기, 「고산칠곡 원림과 고산칠곡시 연구」,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47집,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0.
- 김문기, 「구곡가계 시가의 계보와 전개양상」, 『국어교육연구』 제23집, 국어교육학회, 1991.
- 김문기, 「도산구곡 원림과 도산구곡시 고찰」,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43집,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
- 김문기, 「퇴계구곡과 퇴계구곡시 연구」,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42집,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
- 김문기 · 안태현, 「문경지방의 구곡 원림과 구곡시가 연구」, 『퇴계학과 한국문화

- 』 제35집,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4.
- 김병권, 「퇴계문학의 학문적 지향 연구」, 『퇴계학논총』 제24집, 퇴계학부산연구원, 2014.
- 김상진, 「안서우의 <유원십이곡> 재조명-강호인식과 연작성을 중심으로-」, 『은지논총』 제19집, 은지학회, 2008.
- 김석배, 「『야은선생행록』 연구」, 『영남학』 제27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5.
- 김석희, 「주제적 관심을 통해본 규방가사의 세계」, 「고시가연구」 제23집, 한국고시기문학회, 2009.
- 김선풍, 「강릉지방 규방가사 연구 : 화전가의 배경과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제9집, 한국민속학회, 1976.
- 김선풍, 「규방가사 작자층 소고」, 한국고전문학회 편, 『문학과 사회집단』, 집문당, 1995.
- 김선풍, 「발굴 규방가사 <사명가라>에 대하여」, 『어문논집』 제26집, 중앙어문학회, 1998.
- 김선풍, 「신화를 통해 본 동해안지역의 여신」, 『동방논집』 3권 1호, 한국동방학회, 2010.
- 김선현, 「가진과 소설의 장르 복합으로 본 <친군전>」, 『한국어와 문화』 제11집,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12.
- 김수경, 「신변탄식류 규방가사 <청승가>를 통해본 여성적 글쓰기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9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4.
- 김수경, 「여성교훈서 『구곤의측』과 <홍씨부인계녀(사)>와 관계 탐색」,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3.
- 김수업, 「오광대 각본을 소개함」, 『배달말』 제22집, 배달말학회, 1997.
- 김승곤, 「신반 오광대 탈춤의 발생 문제 고찰」, 『겨레어문학』 제25집, 겨레어문학회, 2000.
- 김신효, 「굿놀이와 탈놀이의 공통성과 독자성 : 동해안 탈굿과 가산오광대 할미, 영감과장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21집, 한국무속학회, 2010.
- 김연화, 「탈춤의 춤사위 비교 연구 : 동래야유, 양주별산대놀이, 봉산탈춤의 말뚝이춤을 중심으로」, 『한국무용연구』 제8집, 한국무용연구회, 1990.
- 김영, 「18세기 영남지방 문학 사상 논쟁 연구-강좌 대 대산 논쟁의 성격과 높은

- 제산의 증재논리-, 『동방학지』 제51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6.
- 김영란, 「탈춤에 나타난 북방계와 남방계의 춤사위 비교」, 『한국무용사학』 제4집, 한국무용사학회, 2005.
- 김영숙, 「15 · 6세기 청도의 한문학」, 『대동한문학』 제11집, 대동한문학회, 1999.
- 김영숙, 「퇴계 한시 연구의 현황과 과제」, 『퇴계학논집』 제1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08.
- 김영일, 「오광대놀이의 이중구조」, 『가라문화』 제7집,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1989.
- 김원준, 「퇴계 시에 나타난 꿈, 그 형상화의 의미」, 『영남학』 제18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 김윤규, 「19세기 말~20세기 초 전통 지식인 한시의 문학사적 성격 검토-척암 김도화의 경우-」, 『동방한문학』 제53집, 동방한문학회, 2012.
- 김윤조, 「18세기 영남과 기호 소론가의 학문과 문학 교류-특히 입재 강재항과 명재 윤증 가문의 경우-」, 『한국학논집』 제53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3.
- 김윤조, 「청천 신유한의 문인들과 그 문학적 지향」, 『한국학논집』 제39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9.
- 김윤희, 「가산 오광대 탈춤 발생시기와 그 특징 연구」, 『진주문화』 15, 진주교육대학교 진주문화권연구소, 1999.
- 김인희, 「하회별신굿 탈놀이 주지마당의 특성과 변용 형태에 관한 연구」, 『무용역사기록학』 제5집, 한국무용기록학회, 2003.
- 김일렬, 「취암문고 소장 한글본 고전소설 연구」, 『영남학』 제3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3.
- 김재웅, 「경북 지역에 유통된 필사본 고소설에 대한 실증적 연구」, 『고소설연구』 24집, 한국고소설학회, 2007.
- 김재웅, 「〈김이양문록〉의 창작방법과 가정소설적 의미」, 『영남학』 제12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7.
- 김재웅, 「영남지역의 선비 집안과 필사본 고전소설의 유통」, 『선비문화』 제11호, 남명학연구원, 2007.

- 김재웅, 「영남지역 필사본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 향유층의 욕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 김재웅, 「필사본 고소설의 지역별 유통과 문화지도 작성」, 『대동문화연구』 제88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 김정동, 「대산 이상정 시에 나타난 도학적 사유」, 『대동한문학』 제25집, 대동한문학회, 2006.
- 김정은, 「동해안무가의 화자별 변이 양상과 의미 : 구연자 성향에 따른 서사적 초점의 이동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32집, 한국구비문학회, 2011.
- 김정화, 「현대 규방가사의 문학적 특징과 시사적 의미-광복 이후의 작품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3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 김종균, 「〈진주낭군〉의 전승 양상과 서사의 의미」, 『운지논총』 제29집, 운지학회, 2011.
- 김종렬, 「영남시조문학의 형성배경과 사상에 관한 연구-우탁, 이현보, 이황을 중심으로-」, 『퇴계학』 창간호,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89.
- 김중순, 「규방가사 신변탄식류에 나타난 담론양상과 지향의식」, 『한성어문학』 제21집, 한성어문학회, 2002.
- 김주부, 「이승연의 생애와 <영대>에 나타난 영남인식」, 『대동한문학』 제37집, 대동한문학회, 2012.
- 김주순, 「퇴계시에 나타난 도연명의 수용 양상」, 『중국어문학』 제45집, 영남중국어문학회, 2005.
- 김지은, 「기녀시조와 규방가사의 한의 표출 양상 비교 연구 : 개방적 표출과 폐쇄적 표출」, 『시조학논총』 36집, 한국시조학회, 2012.
- 김진희, 「〈금속행용가곡〉의 내용적 특성」, 『고전문학연구』 제44집, 한국고전문학회, 2013.
- 김철범, 「낙동강 하구와 서경 한시」, 『한국한문학연구』 제18집, 한국한문학회, 1995.
- 김태웅, 「한유신과 『영언선』을 통해본 대구의 가곡문화」, 『영남학』 제27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5.
- 김학수, 「선유를 통해 본 낙강 연안지역 선비들의 집단 의식-17세기 한려학인을 중심으로-」, 『영남학』 제18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 김학수, 「정구 문학의 창작현장과 유적에 대한 연구」, 『대동한문학』 제29집, 대동한문학회, 2008.
- 김현선, 「경상북도 지역의 논농사와 민요」, 『구비문학연구』 제3집, 한국구비문학회, 1996.
- 김혈조, 「한글본 <박효랑전> 연구 (상)」, 『인문연구』 13권 2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2.
- 나정순, 「규방가사의 본질과 경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 나정순, 「내방가사에 나타난 문학과 여성 인식」, 『고전문학연구』 제10집, 한국고전문학회, 1995.
- 남은경, 「회재의 산수시에 나타난 주자와 장자의 이중적 영향」, 『연구논총』 제16집, 이화여대 대학원, 1988.
- 노성미, 「오광대 연희본의 지역적 상호존성-할미, 영감과장을 중심으로」, 『가라문화』 제26집,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2014.
- 노성미, 「오광대 탈놀이의 지역문화성 연구」, 『인문논총』 제34집,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 류양선, 「통영오광대 분석」, 『한국문화』 제2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1.
- 류연석, 「남해윤씨 종가 소장 규방가사 연구」, 『고시가연구』 제11집, 한국고시가학회, 2003.
- 류준경, 「박효랑 사건의 서사화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2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4.
- 류준경, 「화왕전」의 특성과 역사적 전개 양상, 『동방한문학』 제56집, 동방한문학회, 20313.
- 류증선, 「안동의 비보풍수신앙전설과 그 배경」, 『안동문화총서』 권1, 안동대학 안동문화연구소, 1989.
- 류해춘, 「19세기 화답형 규방가사의 창작과정과 그 의의」, 『문학과 언어』 21집, 문학과언어연구회, 1999.
- 류해춘, 「규방가사에 나타난 놀이문화와 경제활동」, 『국학연구론총』 제15집, 택민국학연구원, 2015.
- 문범두, 「탁영 김일손의 <속두류록> 고 : 기술방식과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



- 한민족어문학』 제51집, 한민족어문학회, 2007.
- 문운선, 「진주 오광대 양반과장 연구 : 통영, 고성, 가산오광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문창어문논집』 제41집, 문창어문학회, 2004.
- 문운선, 「진주 오광대 연구 : 통영, 고성, 가산 오광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부산대 석사논문, 2005.
- 박경신, 「경주 일대 사찰 관련 한시 연구」, 『한국한시연구』 4집, 한국한시학회, 1996.
- 박경신, 「동해안 별신굿 축원무가의 작시원리 : 김동언 구연 <가망거리>를 중심으로」, 『울산어문논집』 11집,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96.
- 박경주, 「규방가사가 지닌 소통과 화합의 문학으로서의 특성 고찰」, 『어문학』 제 119집, 한국어문학회, 2013.
- 박경주, 「규방가사가 지닌 일상성의 양상과 의미 탐구-여성들의 노동과 놀이에 주목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 박경주, 「규방가사 창작에 담긴 문학치료적 기능 : 여성작가와 남성작가의 경우를 포괄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 박경주, 「남성화자 규방가사 연구」, 『한국시가연구』 제12집, 한국시가학회, 2002.
- 박경주, 「변형계녀가의 장르적 특성과 담화 양상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 제9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 박경주, 「양성공유문학으로서의 규방가사의 특성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 제 14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 박경주, 「<합천화양동규방가사>의 토론문학적 성격 고찰 : 화전가류 규방가사 전반의 토론문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겨레어문학』 제33집, 겨레어문학회, 2004.
- 박경주, 「화전가의 의사소통 방식에 나타난 문학치료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제10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 박민일, 「처음으로 발굴된 강원도 규방가사-〈남매가〉-」, 『강원문화연구』 제9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89.

- 박상영, 「서사민요 <만팔애기노래>의 구조적 특징과 그 미학」, 『한국시가연구』 제27집, 한국시가학회, 2009.
- 박선희, 「하회탈춤 복식의 역사적 복원과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방향」, 『백산학보』 제82집, 백산학회, 2008.
- 박성봉, 「영남학의 가능성과 성취과제」, 『인문학연구』 제30권 제1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 박성봉, 「한국문화사와 영남문화론 서설」, 『영남학』 창간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1.
- 박애경, 「신출가사 <준별가>, <효열가>와 규방가사 전통」, 『민족문화사연구』 제22집, 민족문화사학회 민족문화사연구소, 2003.
- 박애경, 「자전적 가사와 젠더-가사의 여성 수용과 관련하여」, 『여성문학연구』 제20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 박애경, 「장편가사 <이정양가록>에 나타난 사족 여성의 삶과 내면 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3.
- 박영민, 「18세기 청량산 유산기 연구」, 『한자한문연구』 제1집,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2005.
- 박영민, 「유산기의 시공간적 추이와 그 의미」, 『민족문화연구』 제40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4.
- 박영민, 「청량산 유산과 도덕적 주체의 응혼미 추구」, 『한자한문연구』 제2집,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2006.
- 박요순, 「이회와 그의 가사 연구」, 『한남어문학』 29, 한남대 국어국문학회, 2005.
- 박이정, 「석문정시가단의 성립과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17집, 한국시가학회, 2005.
- 박정련, 「<도산십이곡>을 통해 본 퇴계의 음악관-<도산십이곡발문>과 <도산십이곡> 언지의 노래를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제2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08.
- 박지애, 「영남지역 서사형 시집살이노래의 통시적 변화와 특징-<중이 된 며느리>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제43집, 한국민요학회, 2015.
- 박지애, 「영남지역 시집살이노래의 특징과 문화적 가치-<중노래>와 <양동가마>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제39집, 한국민요학회, 2013.

- 박진태, 「김해 가락오광대의 지역문화적 특성 : 유래담, 대본, 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13집, 한국어교육학회, 2004.
- 박진태, 「마산오광대의 대본 분석을 통해 본 연희성」, 『구비문학연구』 제3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0.
- 박진태, 「초계 밤마리오광대의 유래 · 원형 · 위상」, 『구비문학연구』 제17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3.
- 박춘우,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교훈 전달방식과 교육적 활용방안 연구」, 『우리말글』 제45집, 우리말글학회, 2009.
- 박혜숙, 「<넌동어미화전가>와 여성의 연대」, 『여성문학연구』 제14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 박혜인, 「규방가사 ‘사친가’를 통해본 모녀관계」, 『Journal of Korean Culture』 1호, 한국어문학회국제학술포럼, 2000.
- 배경숙, 「문경새재아리랑의 영남아리랑사적 고찰-『영남전래민요집』을 중심으로」, 『음악문화학』 제4집, 한국음악문화학회, 2013.
- 백두현, 「영남지역 국어사 자료의 연구 성과와 연구 방향」, 『어문론총』 제59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3.
- 백두현, 「일본군에 강제 징병된 김종옥의 <춘풍감회록>에 대하여」, 『영남학』 제9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6.
- 백순철, 「가사노동의 분포 현황과 특징-데이터베이스와 전자문화지도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56집, 민족어문학학회, 2007.
- 백순철, 「규방가사에 나타난 가사노동의 의미와 ‘일상성’의 문제」, 『한국시가연구』 제29집, 한국시가학회, 2010.
- 백순철,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가족인식」, 『한민족문화연구』 제28집, 한민족문화학회, 2009.
- 백순철, 「규방가사와 근대성의 문제」, 『한국고전연구』 제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 백순철, 「규방가사의 문화적 의미와 교육적 가치 1 : 화전가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14집, 국어교육학회, 2002.
- 백순철, 「규방 공간에서의 문학 창작과 향유」, 『여성문학연구』 14,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 백순철, 「문화콘텐츠 원천으로서 <화전가>의 가능성」,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

- 34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4.
- 백순철, 「소정가사의 독립의식과 문체적 특징」, 『어문론총』 제45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6.
- 백순철, 「은촌 조애영 가사의 문체와 여성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 백순철, 「최송설당 가사의 문체와 현실 인식」, 『고시가연구』 제15집, 한국고시가학회, 2005.
- 查屏球, 「근세 사인의 정신적 도원-무이시화 미학과 퇴계 시학」, 『퇴계학논집』 제5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09.
- 서수생, 「영남지역의 한문학 : 특히 최고운과 해인사에 얽힌 유문사적진안」, 『한국학논집』 제16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9.
- 서연호, 「낙동강 유역의 가면문화와 오광대탈놀이」, 『배달말』 제22집, 배달말학회, 1997.
- 서영숙, 「개화기 규방가사의 한 연구-‘쇠골색씨설은타령’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14집,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어문연구회, 1985.
- 서영숙, 「서사민요 <그릇 깬 며느리 노래>의 전승양상과 향유의식」, 『한국민요학』 제29집, 한국민요학회, 2010.
- 서영숙, 「서사민요 <친정부음 노래>의 서사구조와 향유의식」, 『새국어교육』 제85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10.
- 서영숙, 「시집살이에 대한 알레고리-<꿩노래>와 <방아깨비노래> 비교-」, 『한국민요학』 제31집, 한국민요학회, 2011.
- 서영숙, 「영남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적 특질-호남지역 서사민요와의 비교를 위하여」, 『고시가연구』 제26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0.
- 서영숙, 「영·호남 서사민요의 소통과 경계-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전승적 특질 비교」, 『고시가연구』 제28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1.
- 서인석, 「봉건시대 여성의 이념과 행동-<박효량전>과 <김부인열행록>의 경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 서주연, 「<덴동어미화전가>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의 특징과 의미」, 『도시인문학연구』 5권 1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3.
- 서지연, 「통영 오광대 춤사위 분석을 통한 미의식 연구」, 『민족미학』 13권 1호, 민족미학회, 2014.

- 성무경, 「〈복선화음가〉류 가사의 이본 현황과 텍스트 소통」, 『민족문학사연구』 제22집, 민족문학사학회, 2003.
- 손대현, 「『두암제영』 소재 가사의 형상화와 문학사적 가치」, 『어문론총』 제63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 손영화, 「규방가사와 부요에 나타난 조선조 여성의 현실대응 양상 고찰-부부관계와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한국고시기문화연구』 제36집, 한국고시기문화학회, 2015.
- 손영화, 「최송설당 가사에 나타난 꽃의 의미화 방식」, 『고전과 해석』 제8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0.
- 손영화, 「화전놀이 속의 ‘몸짓’과 의미 맥락 연구-화전가류의 연행 기반을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제6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09.
- 손오규, 「퇴계의 임거십오영의 시세계와 의의」, 『한국문학논총』 제56집, 한국문학회, 2010.
- 손혜리, 「낙하생 이학규의 『영남악부』 재론」, 『영남학』 제24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3.
- 송은도, 「동해안 별신굿 송신질차의 무가와 연행양상」, 『우리춤 연구』 제13집, 한양대학교 우리춤연구소, 2010.
- 신경숙, 「궁중 연향에서의 가사 창작과 전승-〈화조가〉를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제26집, 한국고시기문학회, 2010.
- 신경숙, 「규방가사, 그 탄식 시편을 읽는 방법」, 『국제어문』 제25집, 국제어문학회, 2002.
- 신동훈, 「민간연회의 존재방식과 그 생명력 : 동해안 별신굿의 거리굿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10집, 한국구비문학회, 2000.
- 신두환, 「갈암 이현일의 한시에 나타난 영사의 미의식」, 『한문학논집』 제32집, 근역한문학회, 2011.
- 신두환, 「갈암 이현일의 한시 연구」, 『퇴계학』 제20집,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11.
- 신두환, 「서에 유성룡의 성리학과 문예미학에 관한 담론」, 『한국한문학연구』 제40집, 한국한문학회, 2007.
- 신두환, 「약봉 김극일의 〈임하이십육영〉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제54집, 한국한문학회, 2014.

- 신두환, 「임하구곡의 발견과 그 강호가도 연구」, 『대동한문학』 제62집, 대동한문학회, 2015.
- 신상필, 「친군류 출현의 철학적 기반과 서사문학적 지위」, 『한문학보』 제23집, 우리한문학회, 2010.
- 신승훈, 「조선말 영남지식인의 문에 대한 인식-만성 박치복과 면우 곽종석의 문학논쟁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44집, 한국한문학회, 2009.
- 신연우, 「<도산십이곡> 가르치기의 구체성, 그 일례」, 『퇴계학논집』 제7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10.
- 신연우, 「<도산십이곡> 연구의 현황과 과제」, 『퇴계학논집』 제1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08.
- 신연우, 「이황 산수시의 양상과 물아일체의 논리」, 『한국사상과 문화』 제20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3.
- 신정수, 「의고의 형식과 유가의 코드 : 18세기 영남 문인 권만의 <화고시십구수> 연구」, 『민족문화연구』 제66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5.
- 신정숙, 「내방가사 연구-영남지방의 사대부 가사집 2종을 중심으로-」, 『논문집』 제19권 1호, 서울산업대학교, 1983.
- 신태수, 「퇴계 독서시에 나타난 ‘낙’의 층위와 그 성격」, 『영남학』 제17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 신해진, 「현전 <향병일기>의 선본확정과 그 편찬의 경위 및 시기」, 『영남학』 제25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4.
- 신해진, 「황중윤의 정치적 입장과 <달천몽유록>」, 『국어국문학』 제118호, 국어국문학회, 1997.
- 신해진 · 조태성, 「합천 밤마리 오광대의 실존양상과 그 의미」, 『국학연구론총』 제6집, 택민국학연구원, 2010.
- 신희경, 「삼설기 소재 <노처녀가>의 영웅서사적 성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2집,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학회, 2011.
- 심경호, 「퇴계 산수유기 연구의 현황과 과제」, 『퇴계학논집』 제1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08.
- 심경호, 「퇴계의 산수유기」, 『퇴계학연구』 제10집,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96.

- 심상교, 「동래야류 전승과정 연구(1)」, 『어문논집』 제47집, 민족어문학회, 2003.
- 심상교, 「동해안 별신굿 무가의 대중적 요소에 대한 연구-바리공주와 당금애기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73집, 민족어문학회, 2015.
- 심상교, 「야류, 오광대의 관능적 요소에 대한 연구」, 『한국민속학』 제52집, 한국민속학회, 2010.
- 심상교, 「영남지역 탈놀이에 나타난 여성 등장인물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제14집, 한민족문화학회, 2004.
- 심오섭, 「동해안 심청굿 연구」, 『문화예술콘텐츠』 3집, 한국문화콘텐츠학회, 2009.
- 안득용, 「16세기 후반 영남 문인의 산수유기-지산 조호의 산수유기에 나타난 자연인식과 형상화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55집, 민족어문학회, 2007.
- 안영숙,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진주 오광대 가치와 축제로서의 ‘진주탈춤한마당’ 고찰」, 『글로벌문화콘텐츠』 제20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5.
- 안장리, 「남계 표연말의 생애와 문학」, 『남명학연구』 제20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5.
- 양태순, 「규방가사에 나타난 ‘한탄’의 양상」, 『한국시가연구』 제18집, 한국시가학회, 2005.
- 양희철, 「오광대 가면극의 지역문화성 연구-중앙 선행문화의 수용과 변용을 통하여」, 『가라문화』 제7집,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1989.
- 어영하, 「규방가사의 서사문학성 연구」, 『국문학연구』 제4집, 효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소, 1973.
- 엄기영, 「〈천군전〉, 남명학과의 정치적 상상력」, 『고소설연구』 제39집, 한국고소설학회, 2015.
- 엄연석, 「퇴계 산수시에 나타난 의리역학적 관점과 도덕적 이상」, 『한국민족문화』 제47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 오보라, 「이정 『구암집』 수록 작품의 작자에 대한 재검토」, 『한문학보』 제29집, 우리한문학회, 2013.
- 오용원, 「영남지방 누정문학 연구 I-경주, 청도, 영천, 안동 지역 소재 누정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제22집, 대동한문학회, 2005.
- 오희정, 「〈어득강전〉의 기법적 특징과 창작 의식」, 『영남학』 제8호, 경북대학교

- 영남문화연구원, 2005.
- 우응순, 「산수유기의 전통과 주세붕의 <유청량산록>」, 『우리문학연구』 제14집, 우리문학회, 2001.
- 우응순, 「청량산 유산문학에 나타난 공간인식과 그 변모 양상-주세붕과 이황의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34권 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 원종인, 「서사적 규방가사의 구조 연구」, 『세계한국어문학』 2집, 세계한국어문학회, 2009.
- 유영대, 「한국 공연예술의 자료개관 및 연구현황」, 『한국학연구』 제8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6.
- 유정선, 「근대이행기 규방가사와 공적 제도로서의 학교 : <생조감구가>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31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 육민수,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담화 양상」, 『반교어문연구』 제14집, 반교어문학회, 2002.
- 윤광봉, 「한국 가면극의 형성과정 : 나례의 변이양상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제9집, 비교민속학회, 1992.
- 윤귀섭, 「가사문학에 나타난 지소 고찰」, 『동대논총』 제3권 1호, 동덕여자대학교, 1973.
- 윤동환, 「경상도 내륙 무속의 실체와 특징」, 『한국무속학』 제22집, 한국무속학회, 2011.
- 윤동환, 「굿의 형식 전환과 무악의 변화 : 동해안 서사무가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20집, 한국무속학회, 2010.
- 윤동환, 「동해안굿의 전승주체와 문화 창출」, 『한국무속학』 제17집, 한국무속학회, 2008.
- 윤동환, 「동해안 필사본 무가의 존재양상과 기능적 특징」, 『한국무속학』 제14집, 한국무속학회, 2007.
- 윤동환, 「심청굿의 전승과 확산 연구」, 『구비문학연구』 38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4.
- 윤성훈, 『조성당일기』를 통해 본 17세기 초 영남사족의 일상 속의 문화생활, 『한문학논집』 제35집, 근역한문학회, 2012.
- 윤인현, 「남명의 출처와 문학을 통해 본 선비정신」, 『영남학』 제13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8.



- 윤호진, 「매계 조위의 학문 연원과 시세계-점필재 김종직 문하에서의 위치와 무오사화를 전후한 시세계의 두 국면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제20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5.
- 이강욱, 「가산오광대 대사의 유기적 분석-가면극의 유기적 해석을 위하여」, 『가라문화』 제7집,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1989.
- 이구의, 「경은 이맹전의 시의 진위와 그의 시에 나타난 지향의식」, 『한국사상과 문화』 제72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4.
- 이구의, 「이색과 김종직의 <관어대소부>와 <관어대부> 고」, 『한국사상과 문화』 제60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
- 이구의, 「자암 이민환의 시문학 연구」, 『동방한문학』 제34집, 동방한문학회, 2008.
- 이구의, 「조선시대 시인과 시정신-15,16세기 영남사림파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제59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
- 이구의, 「조선 초 영남사림파의 도학적 문학사상」, 『한국학논집』 제45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1.
- 이균욱, 「심청국의 형성 문제」, 『동리연구』 1집, 동리연구회, 1993.
- 이기대, 「심성론의 역사적 전개와 김우옹의 <천군전>」, 『한국학연구』 제30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 이동영, 「규방가사 전이에 대하여 : 안동지방의 그 일례」, 『논문집』 제10집, 경북공업전문대학, 1973.
- 이동영, 「영남가단 연구」, 『시조학논총』 제3,4합집, 한국시조학회, 1988.
- 이동환, 「퇴계문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의 철학』 제18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90.
- 이매기, 「통영오광대 대사」, 『국어국문학』 제22호, 국어국문학회, 1960.
- 이명숙, 「차퇴계시를 통해 본 퇴계시의 계승 양상과 의미」, 『동양문화연구』 제5집,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0.
- 이명진, 「동해안 김동언 <심청>의 판소리 수용과 변화 연구」, 『판소리연구』 36집, 판소리학회, 2013.
- 이문기, 「통영오광대 대사」, 『국어국문학』 제22호, 국어국문학회, 1960.
- 이민홍, 「퇴계학파의 문학 : 남인문학의 성립과 그 전개」, 『남명학연구』 제9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9.

- 이병옥, 「신라 오기와 영남지방 탈춤의 전승양상 비교」, 『한국무용사학』 제6집, 한국무용사학회, 2007.
- 이병옥, 「영남춤의 생태민속학적 고찰」, 『한국무용연구』 29권 2호, 한국무용연구회, 2011.
- 이병옥, 「탈춤에 나타난 북방춤과 남방춤의 계통적 비교」, 『공연문화연구』 제7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03.
- 이병옥 · 소병구, 「남방계와 북방계 탈춤의 생태환경적 비교 연구」, 『인문사회논총』 제12집,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5.
- 이상규, 「문학방언 연구의 가능성과 그 방향」, 『한민족어문학』 제39집, 한민족어문학회, 2001.
- 이상균, 「조선시대 사대부의 산수유관과 구곡 유람」, 『영남학』 제27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5.
- 이상동, 「수헌 이중경의 시세계-오대 은거와 『잡훼원집』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제30집, 대동한문학회, 2009.
- 이상원, 「<개암십이곡>의 성격과 시가사적 위상」, 『고시가연구』 제19집, 한국고시가학회, 2007.
- 이상원, 「상주문화권 시가문학 연구」, 『어문론총』 57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 이상원, 「<청량산백구지곡>의 창작 시기와 작품 성격」, 『한국시가문화연구』 제37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6.
- 이상하, 「퇴계·남명의 시와 대조적인 학문성향」, 『영남학』 제26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4.
- 이성혜, 「사람들의 유람 입문서, 김종직의 『유두류록』」, 『경남학』 제31집,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2010.
- 이세동, 「옥계 반우형과 <한빙계> 고찰」, 『영남학』 제25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4.
- 이세동, 「한훤당문학 연구의 과거와 미래」, 『영남학』 제22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2.
- 이신성, 「합천화양동 파평윤씨가 규방가사 해제」, 『어문학교육』 제11집, 한국어문교육학회, 1989.
- 이영배, 「시선과 형상 : 화희별신굿 탈놀이의 징후적 독해」, 『탈경계 인문학』 제

- 3권 1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0.
- 이용식, 「경상북도 서사민요의 음악적 연구-〈이선달네 딸애기에 기하여〉», 『한국민요학』 제11집, 한국민요학회, 2002.
- 이원걸, 「김종직의 부에 반영된 유자 의식」, 『퇴계학』 제13집,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2.
- 이원주, 「고전소설 독자의 성향-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3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0.
- 이운갑, 「지역학 연구의 방향과 방법론」, 『동방한문학』 제26집, 동방한문학회, 2004.
- 이임수, 「〈역대전리가〉와 초기가사에 대한 연구」, 『어문학』 제46집, 한국어문학회, 1985.
- 이임수, 『〈역대전리가〉와 형성기의 가사문학 고』, 『우리말글』 제47집, 우리말글학회, 2009.
- 이정복, 「영남지역 탈춤 대사의 사회언어학적 분석」, 『어문학』 제88집, 한국어문학회, 2005.
- 이정아, 「규방가사와 시집살이 노래에 나타난 여성의 자기인식」,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 이정아, 「〈홍글소리〉에 대한 일고-〈홍글소리〉에 나타난 탄식을 통해본 여성의 자기탐색적 태도」, 『한국고전연구』 2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 이정화, 「서에 유성룡의 설리시 연구」, 『영남학』 제9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6.
- 이정화, 「퇴계 문학비평 연구의 현황과 과제」, 『퇴계학논집』 제1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08.
- 이종문, 「노계 〈영남가〉의 찬양 대상 인물에 대한 고찰」, 『어문논집』 제59집, 민족어문학회, 2009.
- 이종호, 「18세기 안동 여항문학 시탐-열악한 신분 극복의 사다리 : 도학, 문예, 교육-」, 『대동한문학』 제41집, 대동한문학회, 2014.
- 이종호, 「구곡 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국사상과 문화』 제50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 이종호, 「영남선비들의 구곡경영과 최남복의 백련서사」, 『영남학』 제18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 이중호, 「조선 초기 낙동강 중류 지역 사림의 문학사상-점필재 김종직의 문학사상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40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 이중호, 「조선후기 영남남인의 문학관 연구-갈암학과의 문학관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제103집, 퇴계학연구원, 1999.
- 이중호, 「지역 한문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안동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39집, 한국한문학회, 2007.
- 이중호, 「퇴계의 비지문 연구현황과 과제」, 『퇴계학논집』 제1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08.
- 이중호, 「한국 구곡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 구곡경영과 구곡시 전개를 중심으로」, 『안동학연구』 제10집, 한국국학진흥원, 2011.
- 이중호, 「현와 이도의 삶과 문학」, 『대동한문학』 제40집, 대동한문학회, 2014.
- 이지양, 「강좌 권만과 대신 이상정의 문학 논쟁 : 18세기 영남의 문풍 속에서의 그 의미」,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2.
- 이지양, 「조선중기 성리학자의 산수 감상 특징과 그 의미-여헌 장현광의 <주왕산록>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29집, 한국고전문학회, 2006.
- 이진희, 「진주탈춤마당의 지역화와 세계화에 관한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제7집,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1.
- 이향배, 「입재 정종로의 한시 연구」,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50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2.
- 이현수, 「규방가사와 부요의 비교 연구」, 『고시가연구』 제13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 이형대, 「규방가사, 민요, 계몽가사의 모성 표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 이훈상, 「어느 지방 이서의 임진왜란 증언과 전승-경상도 인동의 향리 유석진과 그의 임진왜란 일기-」, 『영남학』 제21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2.
- 이훈상, 「조선후기의 향리집단과 탈춤의 연행-조선후기 읍권의 운영원리와 읍의 제의-」, 『동아연구』 제17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9.
- 이희숙, 「규방가사 <형테원별가> 연구」, 『사림어문연구』 제11집,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사림어문학회, 1998.

- 임노직, 「소백산의 문학적 형상화 고찰」, 『한문학논집』 제38집, 근역한문학회, 2014.
- 임노직, 「학가산의 문학적 형상화」, 『퇴계학』 제22집,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14.
- 임재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하회마을 민속의 문화적 가치」, 『국학연구』 제13집, 한국국학진흥원, 2008.
- 임재해, 「탈과 조각품으로 본 하회탈의 예술성과 사회성」, 『예술과 비평』 제9호, 서울신문사, 1986.
- 임재해, 「탈춤이 걸어온 길과 마당극이 걸어갈 길」, 『민속학연구』 제5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9.
- 임재해, 「하회탈놀이의 제의성과 예술성, 그리고 민중적 창조력」, 『안동학연구』 제2집,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2003.
- 임재해, 「한국 탈춤의 전통과 아름다움의 재인식」, 『비교민속학』 제37집, 비교민속학회, 2008.
- 임종명, 「영호남 농요의 비교 연구」, 『효대논문집』 제24권 1호, 효성여자대학교, 1982.
- 임혜자, 「경북 가면무의 미적 연구 : 하회별신탈춤을 중심으로」, 『논문집』 제17집, 대구교육대학교, 1981.
- 장경남, 「〈천군전〉으로 본 16세기 소설사의 한 경향」, 『민족문화사연구』 제25집, 민족문화사학회, 2004.
- 장봉수, 「〈천군전〉과 〈수성지〉 비교 연구」, 『국학연구론총』 제15집, 택민국학연구원, 2015.
- 장성진, 「시집살이요의 유형과 인물」, 『여성문제연구』 12, 효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 장안영, 「새로운 가사 작품 윤씨부인의 〈문여가〉에 대하여」, 『퇴계학논총』 24, 퇴계학부산연구원, 2014.
- 장정수, 「1960~70년대 기행규방가사에 나타난 여행문화와 작품세계-유흥적 성격의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70집, 민족어문학회, 2014.
- 장효현, 「〈삼한습유〉에 나타난 열녀의 형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1.
- 장휘주, 「경상도 동해안 무가 고삼, 자삼의 유래」, 『한국음반학』 11집, 한국고음

- 반연구회, 2001.
- 전경옥, 「가산오광대 연회본」, 『한국민속학』 제27집, 한국민속학회, 1995.
- 전경옥, 「한국가면극의 계통을 보는 시각 재론」, 『한국민속학』 제50집, 한국민속학회, 2009.
- 전미경, 「개화기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시대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권 1호, 한국가족관계학회, 2001.
- 전미경, 「개화기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일상에 대한 여성의 시각-계몽의 시각과의 다름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4권 1호, 한국가족학회, 2002.
- 전병철, 「김수재 박여량의 지리산유람과 그 인식-〈두류산일록〉의 분석을 중심으로-」, 『경남문화연구』 제31집,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2010.
- 전재강, 「새로 발굴한 규방가사에 나타난 이념과 풍류의 상관 맥락」, 『우리문화연구』 제41집, 우리문화회, 2014.
- 전재동, 「홍여하의 시세계 연구-문학론과 작시 양상 분석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제37집, 대동한문화회, 2012.
- 전재진, 「가집 『흥비부』의 전사본과 19C 후반~20C 초반 가곡의 변화양상」,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 정경주, 「한문학에 나타난 부산 지역 문화전통의 특성」, 『동방한문학』 제26집, 동방한문화회, 2004.
- 정기철, 「조선후기 가사의 담론 기반과 특성-서민가사와 규방가사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52집, 한국언어문화회, 2004.
- 정길자,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도 이데올로기 고찰」, 『지역학논집』 제5집, 숙명여자대학교 지역학연구소, 2001.
- 정길자, 「규방가사 <화전가>에 나타난 내면세계 고찰」, 『숙명어문논집』 제4집,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2.
- 정만호, 「지역 한문학 연구의 실상과 문제점」, 『한국한문학연구』 제39, 한국한문학회, 2007.
- 정무룡, 「합천 화양동 윤씨가 세전 <기수가>의 논쟁 양상 연구」, 『한국시가연구』 제21집, 한국시가학회, 2006.
- 정병호, 「조선후기 고령 지역 한문학의 전개양상과 특징」, 『동양예학』 제22집, 동양예학회, 2009.

- 정병호, 「지산 조호의 유산록의 세계인식과 형상화 방식」, 『국학연구론총』 제14집, 택민국학연구원, 2014.
- 정병호, 「한문소설 <유오승기> 해제 및 역주」, 『영남학』 제12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7.
- 정상박, 「경남 가면극의 전승양상」, 『공연문화연구』 제7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03.
- 정상박, 「고성오광대 대사」, 『국어국문학』 제22호, 국어국문학회, 1960.
- 정상박, 「고성오광대의 대사 전승양상」, 『민속문화』 제3집, 동아대학교 한국민속문화연구소, 1981.
- 정상박, 「낙동강과 들놀이 연구의 반성」, 『동남어문논집』 제20집, 동남어문학회, 2005.
- 정상박, 「오광대와 들놀이 연구 : 대사 분석을 중심으로」, 『동아논총』 제20집, 동아대학교, 1983.
- 정상박, 「오광대와 들놀이 형성 연구」, 『국어국문학』 제11집, 동아대학교, 1992.
- 정시열, 「점필재 김종직의 영남제영 고」, 『한민족어문학』 제38집, 한민족어문학회, 2001.
- 정용수, 「산수유록으로서의 <록>체와 <두류기행록>」, 『반교어문연구』 제11집, 반교어문학회, 2000.
- 정용수, 「조선조 산수유람문학에 나타난 <록>체의 전통과 남해 금산」, 『석당논총』 제25집,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1997.
- 정우락, 「18세기 후반 영남문단의 일 경향 : 지에 정위의 가문의식」, 『남명학』 제15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0.
- 정우락, 「낙동강과 그 연안지역의 공간 감성과 문학적 소통」, 『한국한문학연구』 제53집, 한국한문학회, 2014.
- 정우락, 「남명 조식의 ‘물’ 인식과 인문정신」, 『영남학』 제26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4.
- 정우락, 「도산서원에 대한 문화론적 독해-일기와 기행록을 중심으로-」, 『영남학』 제27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5.
- 정우락, 「동계 조형도 시에 나타난 ‘물’에 대하여」, 『영남학』 제28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5.
- 정우락, 「산중도서관 ‘무흘정사 장서각’의 장서 성격과 의미」, 『영남학』 제20호,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1.
- 정우락, 「서계 김담수의 전쟁체험과 그 문학적 대응」, 『영남학』 제10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6.
- 정우락, 「성주 및 김천 지역의 구곡문화와 무흘구곡-무흘구곡의 일부 위치 비정을 겸하여-」,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54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4.
- 정우락, 「이진상의 산수흥취와 그 문학사상의 철학적 기저」,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38집,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6.
- 정우락, 「일두 정여창 문학사상의 양상」, 『동양철학연구』 제38집, 동양철학연구회, 2004.
- 정우락, 「일두 정여창 문학사상의 의」, 『동양한문학연구』 제19집, 동양한문학회, 2004.
- 정우락,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방식과 문화공간 만들기」, 『퇴계학논집』 제15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14.
- 정우락, 「조선중기 강안지역의 문학활동과 그 성격-낙동강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시론-」, 『한국학논집』 제40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0.
- 정우락, 「회당 장석영이 쓴 『흑산록』의 서술방식과 가치」, 『영남학』 제23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3.
- 정인숙, 「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내면과 종교적 믿음의 양상 : 규방가사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9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
- 정인숙, 「노년기 여성의 ‘늙은 몸/아픈 몸’에 대한 인식-규방가사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 정재호, 「규방가사에 나타난 말의 아름다움」, 『한글』 214호, 한글학회, 1991.
- 정천구, 「『삼국유사』와 『사석집』의 효에 대한 인식 비교」, 『영남학』 제14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8.
- 정출현, 「탄금대 전투에 대한 기억과 두 편의 <달천몽유록>」, 『고소설연구』 제29집, 한국고소설학회, 2010.
- 정한기, 「민요 <산유화>의 통시적 양상」, 『고전문학과 교육』 제17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 정한기, 「<서동요>에 나타난 민요적 성격」, 『고전문학과 교육』 제22집, 한국고



- 전문학교육학회, 2011.
- 정한기, 「영남 지역 <시집살이노래>에 나타난 비애」, 『한국문학논총』 제67집, 한국문학회, 2014.
- 정한기, 「영호남 지역 <논매는소리>에 나타난 애정의 양상과 배경」, 『한국시가 연구』 제30집, 한국시가학회, 2011.
- 정형호, 「탈놀이에 나타난 기층집단의 성의식과 그 상징성」, 『실천민속학연구』 제8호, 실천민속학회, 2006.
- 조동일, 「문학지리학을 위한 출발선상의 토론」, 『한국문학연구』 제27권,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4.
- 조동일, 「영남문학 연구의 과제와 인물전설의 의의」, 『영남학』 창간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1.
- 조동일, 「조선시대 영남지방 농민시의 세 층위」, 『민족문화논총』 제11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 조순자, 「성숙의 경계를 넘어선 굿놀이의 성적결합 모티프와 여성신의 의미 : 동해안 별신굿의 당금에기 서사무가와 중도독잡이놀이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8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 조윤제, 「퇴계 중심한 영남가단」, 『청구대학논문집』 제8집, 1965.
- 조정현, 「마을 성격에 따른 인물전설의 변이와 지역담론의 창출-안동지역 서애 류성룡 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9집, 한국구비문학회, 2009.
- 조정현, 「하회별신굿의 지역성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국제화 추구의 양면성」, 『한국민속학』 제50집, 한국민속학회, 2009.
- 조정현, 「하회탈춤 전통의 재창조와 안동문화의 이미지 변화」, 『비교민속학』 제29집, 비교민속학회, 2005.
- 조지형, 「선오당 이시의 시가 창작 맥락과 양상」, 『한국학연구』 제37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 조춘호, 「소정 이희의 삶과 문화활동」, 『경산문화연구』 8, 대구한의대학교 경산문화연구소, 2004.
- 조태성, 「정식의 <축산별곡>과 그 문학사적 의미」, 『고시가연구』 제26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0.
- 조태성, 「차별의 표방, 욕망의 충돌 : <계녀가>류 가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

- 이론과 비평』 제53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 조해숙, 「전승과 향유를 통해본 <개암십이곡>의 성격과 의미」, 『국어국문학』 제133호, 국어국문학회, 2003.
- 주승택, 「경북지역의 한문학 연구」, 『동방한문학』 제26집, 동방한문학회, 2004.
- 최규수, 「계녀가류 규방가사에서 <귀녀가>의 특징적 면모와 ‘귀녀’의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26집, 한국시가학회, 2009.
- 최규수, 「<사친가>의 자료적 실상과 특징적 면모」, 『한국고전연구』 25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 최규수, 「<석별가>에 나타난 처녀들의 이중욕망과 철들다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 최규수, 「<여자자타가>의 자료적 실상과 특징적 면모」, 『어문연구』 43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5.
- 최규수, 「자탄형 <사친가>의 특징적 양상과 ‘사친’의 의미」, 『어문연구』 40권 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 최상은, 「규방가사의 유형과 여성적 삶의 형상」, 『새국어교육』 91, 한국국어교육학회, 2012.
- 최석기, 「하범운의 삼산구곡시 창작배경과 덕산구곡시의 의미」, 『남명학연구』 제42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4.
- 최석기, 「함양지역 사대부들의 지리산유람록에 나타난 정신세계」, 『경남문화연구』 제31집,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2010.
- 최선 · 강은주, 「한국 하회탈춤과 일본 노오무용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6권 2호, 한국무용교육학회, 2005.
- 최선희, 「단릉 이윤영의 시문에 나타난 영남의 인상-1728년 무신란의 흔적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제27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4.
- 최성애, 「계미통신사행록을 통해 본 공연 양상-〈일동장유가〉, 〈승사록〉, 〈일본 녹사상기〉의 국내여정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84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
- 최성진, 「동해안 별신굿 무가의 전승현황 연구」, 『한국무속학』 제17집, 한국무속학회, 2008.
- 최은숙, 「가야산 기행가사의 작품 양상과 표현방식」, 『은지논총』 제41집, 은지학

- 회, 2014.
- 최은숙, 「영남지역 기행가사의 텍스트 존재 양상과 의미」, 『어문학』 제122집, 한국어문학회, 2013.
- 최은숙, 「퇴계의 청량산시에 나타난 유산체험의 시화 양상과 의미」, 『동양고전연구』 제56집, 동양고전학회, 2014.
- 최은주, 「18세기 어느 울산부사를 통해 본 지방관 글쓰기의 실제-청대 권상일의 울산부사 시절을 중심으로-」, 『영남학』 제16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 최은주, 「동계 조형도의 문학교류와 인맥네트워크」, 『영남학』 제28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5.
- 최은주, 「일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영남지방 지식인과 과거시험의 형상화」, 『대동한문학』 제38집, 대동한문학회, 2013.
- 최은주, 「지방수령의 지역에서의 교유와 문자 수수-19세기 상주목사 홍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영남학』 제22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2.
- 최은주, 「허주 이종악의 한시를 통해 본 18세기 영남선비의 여가생활과 가치지향」, 『어문론총』 제62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4.
- 최재남, 「분강가단의 풍류와 후대의 수용」, 『배달말』 제30집, 배달말학회, 2002.
- 최재호, 「심청가에 수용된 심청 서사 수용 요인」, 『인문과학연구』 34집,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 최천집, 「〈천군전〉의 심성론적 성격과 의미」, 『동방학』 제15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8.
- 최한선, 「영호남 사림과 금남 최부」, 『고시가연구』 제27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1.
- 최한선, 「행당 윤복과 서술시의 미학」,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40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4.
- 하강진, 「초엄선사 <삼화전>의 작중인물과 공간의 실체」, 『한국문학논총』 제59집, 한국문학회, 2011.
- 하상규, 「규방가사 ‘석별가라’에 대하여」, 『동아어문논집』 제1집, 동남어문학회, 1991.
- 하운섭, 「시적 체험의 다양성과 <노처녀가 1> : 규방가사 권역에서 향유된 <노

- 처녀가 1>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제44집, 국어문학회, 2008.
- 한귀은, 「지역 놀이문화로서의 탈놀이 교육 : 진주 탈춤한마당, 유등축제, 개천제의 오광대놀이를 중심으로」, 『배달말』 제37집, 배달말학회, 2005.
- 한명환, 「50년대 대구경북지역 군소작가들의 신문소설의 발굴과 의미-이정수, 김동사, 홍영의신문소설에 나타난 지역적 의미를 중심으로-」, 『영남학』 제18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 한명환, 「전후(1954~1960) 대구경북지역 신문소설의 특성과 의의」, 『영남학』 제24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3.
- 한양명, 「지역축제의 전승과 민속의 변용」, 『비교민속학』 제35집, 비교민속학회, 2007.
- 한의승, 「『골동록』 소재 일화의 서술양상과 그 의미」, 『어문론총』 제63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 한의승, 「『어우야담』 이본 소개-경북대 소장본을 중심으로」, 『영남학』 제10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6.
- 허권수, 「경남지역 한문학에 대한 역사적 고찰」, 『동방한문학』 제26집, 동방한문학회, 2004.
- 허권수, 「동계 조형도의 생애와 그 시대」, 『영남학』 제28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5.
- 허남욱, 「지역학으로서의 한문학, 연구 범위와 전망」, 『한문고전연구』 제22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1.
- 허왕욱, 「규방가사와 조선후기 여성의 자아정체성 찾기」, 『한국어문교육』 제12집, 한국고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03.
- 허철희, 「은촌 조애영의 규방가사 고찰-작품의 내용 소개를 중심으로-」, 『동국어문학』 제7집, 동국어문학회, 1995.
- 홍경표 · 장성진 · 권영철 · 박혜숙, 「영사가사 연구 : 규방가사를 중심으로」, 『여성문제연구』 제14집,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5.
- 홍우흠, 「퇴계의 『매화시첩』 상석」, 『퇴계학논집』 제1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08.
- 홍원식, 「영남 유학과 ‘낙중학」」, 『한국학논집』 제40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 홍재휴, 「김부인열행록」, 『어문학』 제24집, 한국어문학회, 1971.

- 홍재휴, 「영남가사문학 연구(一)-인재가사고-」, 『논문집』 제8집, 대구교육대학교, 1972.
- 홍태한, 「김석출 구송 <바리공주> 연구-<방심굿> 무가 연구」, 『한국무속학』 제4집, 한국무속학회, 2002.
- 홍태한, 「무가권에 따른 서사무가의 전승 양상」, 『한국무속학』 제3집, 한국무속학회, 2001.
- 홍태한, 「손님굿 무가 연구」, 『한국민속학보』 10, 한국민속학회, 1999.
- 홍태한, 「심청굿과 오구굿을 통해 본 굿거리의 변화」, 『한국무속학』 제1집, 한국무속학회, 1999.
- 홍태한, 「심청굿 무가의 변이양상과 형성과정 추론」, 『한국무속학』 제2집, 한국무속학회, 2000.
- 황동권, 「창주 이창진의 생애와 우언작품 연구」, 『대동한문학』 제42집, 대동한문학회, 2015.
- 황위주, 「계당과 민산의 한시 창작경향」,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44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9.
- 황위주, 「사미헌 장복추의 한시세계」, 『어문론총』 제47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7.
- 황위주, 「성주 한문학의 역사적 전개양상」, 『영남학』 제21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2.
- 황위주, 「취암문고 소장 한시문선집 자료에 대하여」, 『영남학』 제3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3.
- 황재근, 「규방가사의 사상적 배경 연구」, 『국어교육』 제41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2.

